

“이단 대처 위해 성경과 바른 교리 정확히 가르쳐야”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한림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와
한국기독교한림원이 최근 서울신대 존토
마스터에서 ‘한국교회와 이단, 어떻게 대
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선교 140
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은선 박사(안양대 명예교수)가 좌장
을 맡은 이날 학술대회에는 발표와 논평,
그리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체계·실제적 이단 퇴치운동 전개해야”

본격 발표에 앞서 정상운 박사(한국기
독교한림원 원장, 성결대 명예총장)가 개
회사를 전했다. 정 박사는 “그 동안 많이
성장한 한국교회 못지 않게 이단사이비
도 공존하고 있다”며 “그들은 지금도 고
고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적극적 포교
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박사는 “한국교회에 이단에 대한 위
기의식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
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며 “교파와
교단을 넘어 서로 힘을 합쳐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이단 퇴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이단에 대처할 한국교회 연
합 전문기관의 설립과 신학자 및 신학교
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평신도
를 대상으로 이단강좌를 마련해야 한다
고도 역설했다. 그는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단, 육체 아닌 영원한 생명 훼손”

이후 발표에서 목장군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는 “정통 교회가 성장 둔화와 정
체를 겪는 동안, 물문교·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 이단 종파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물문교가



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인 정상운 박사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패널 발표자들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한림원 공동학술대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1830년 6명에서 출발해 현재 1,7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사례와, 국내에서도 하
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성장
한 현상을 언급하며 “이단 팽창은 단순
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정통 신앙의 위기”
라고 강조했다.

목 박사는 또 이단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늘날 일
부에서는 이단을 신학적 허생양으로 보
고, 정통 교회를 권력의 산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통에 대한 권위주의적
거부감이 이단을 오히려 해방적 대안으로
미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말했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단에 대처한
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지는
흐름까지 생겼다”고 진단했다.

다만 목 박사는 이단 판정의 신중함
도 강조했다. 그는 교리사적 관점에서 이
단을 규정하는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는 점을 짚었다. 에반스, 곤잘레스, 페리
칸 같은 교회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
며 “정통과 이단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일
관적이지 않았고 선형적으로 그을 수 있
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모두 이단
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
‘모든 오류가 곧 이단은 아니다’라고 밝
혔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이단 판결이 정치
적 이해관계와 교권 방어에서 비롯된 사
례도 적지 않은지를 지적하며, “사도적 신앙
의 특징으로 △단지 특정한 때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
나는 보편적 현상 △기독교의 본질적 정
체성과 상충하는 가르침, 이로 인한 기독
교 신앙에 과파적 영향 △새로운 교리 주
장 △극단적 신앙을 꼽았다.

그는 결국 “교리사 연구를 통해 과거의
논쟁을 살피는 것이 이단의 실체를 이해
하고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

라고 결론지었다.

◆“성경 근거한 사도적 바른 가르침”

이어 ‘이단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을
고찰한 이승구 박사(합신대 남송 석좌교
수)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과 바
른 성경적 교리를 정확히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성도들이 성경과 바른
성경적 교리에 익숙하게 되면 주변에 이
단적 가르침이 나타났을 때 최소한 무엇
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옳지 않
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과거의 전형적 이단들과 현대
에 새롭게 나타나는 이단들 자체를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
도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것인지를 잘
드러내야 한다”며 “목회자는 이단들에 대
해 잘 알고 그것을 성도에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이단에 대한 최선의 대책
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순결하고 순전한 교회요 성령님께 순종
하는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
며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은 이단으로 갈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사도적
인 바른 가르침을 전하면 복음이 온 세상
에 전해지고 개인과 세상이 살아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단 대처의 딜레마”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탁지일 교수(부
산신대)는 구체적인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역사와 최근 이단 동향 및 대처 등
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단 대처에 있어
느끼게 되는 ‘딜레마’를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양의 옷을 입고 합법적으로 포
교 활동을 펼치는 이단들의 광폭 행보를
저지할 만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
다”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비성경
적 이단인 것은 분명하나, 현혹과 거리 청
소 등의 이타적인 모습으로 포장된 이들
에 대처하려니,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로 인
해 사회적 비난에 노출된 교회의 모습이
떠올라 웬지 꺼림칙하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에 ‘사전 예방’ 기능을 가
진 교회의 무기력한 이단 대처 현실이 아
쉽다”고 했다.

◆“이단 규정 못지않게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 교육에 집중해야”

끝으로 종합논평에 나선 박명수 박사
(서울신대 명예교수)는 한국교회가 어떻
게 해야 이단문제를 공정하게 다루며, 건
전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 방안
을 4가지로 정리해 제안했다.

①이단논쟁은 교리에 관한 것으로 제
한해야 한다 ②현재 세계기독교를 근본
부터 흔드는 것은 바로 기독교 내부에서

나오는 자유주의신학 ③한국적인 상황
에서 이단문제 연구 ④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인가를 분명히 하고 기독교가 용인
할 수 있는 범주 마련

박 박사는 “수많은 이단의 등장은 교
회가 건전한 신학교육을 하지 못한 결과
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
는 이단을 규정하는 일 못지않게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
으로써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가 사라지
고,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박응규 박사(총
무, 아신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드린 개회
예배(선 이승호 박사(서울신대 부총장))
가 기도했고,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
예교수)의 성경봉독 후 황덕현 박사(서울
신대 총장)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
도(고전 1:18~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합심기도 순서에선 안명준 박사
(평택대 명예교수)가 ‘나라와 민족을 위
해’, 임성태 박사(전 강서대 총장)가 ‘한국
교회와 동성애 확산 저지를 위해’, 이광희
박사(평택대 명예교수)가 ‘서울신학대학
을 위해’, 아주 박사(전 칼빈대 교수)가 ‘한
국기독교한림원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
도했다. 예배는 오덕교 박사(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진영 기자

현대약품 앞 제6차 ‘먹는 낙태약 수입 저지’ 규탄집회 열려

생명운동연합·태여연, 낙태약 위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현대약품의 먹는 낙태약 수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학계·청년 단체들이 최근
서울 강남구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제6
차 규탄집회를 열고, 회사 층의 즉각적 철회
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생명운동연합(대표 김길수 목사)과 태

여연(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이재
훈 목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의
학 전문가, 생명윤리학자, 대학생 대표 등
이 참여해 낙태약물의 위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집회에는 제양규 교수(태여연 운영위

원장), 인천가톨릭대학교 김경아 교수(프
로라이프 대학생회 지도교수), 인천가톨
릭대학교 프로라이프대학생회 청년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낙태약물
의 의학·사회적 위험성과 생명윤리적 쟁
점을 제기하고 청년 세대와 학계가 바라
보는 생명 가치 회복의 필요성을 전했다.

현장에서 카일생명존중운동(대표 오연

희)은 특별 퍼포먼스를 통해 낙태약물 복
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오연희 대표는 기업
이념과 생명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
약품에 낙태약물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오 대표는 “현대약품이 말하는 ‘모두
가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에는 낙태약으
로 고통받을 여성과 약물로 생명을 잃게



‘먹는 낙태약 수입 저지’ 규탄집회가 진행
되고 있다. ©생명운동연합

되는 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면 수입 추진을 즉

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운동연합과 태여연은 먹는 낙태약
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출혈, 폐혈증, 자궁
손상, 불완전 낙태 등 심각한 부작용 사
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충분한
안전망 없이 수입사용이 논의되는 현실
에 우려를 표했다.

두 단체는 현대약품이 수입 추진 철회
를 명확히 밝힐 때까지 매주 동일 장소에
서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또 법적·정책적
대응과 연대 활동을 확대, 태아 생명 보호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2025-2026
강원 봄문의 해
Visit GANGWON YEAR
철원
Cheorwon

기독일보

1억년,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협곡
다채로운 바위 순암계곡 절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아찔한 잔도

변화의 중심
다시 뛰는 철원

unesco
한탄강지질공원
철원군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횃불전망대

‘조력존엄사’ 논쟁... “무의미한 고통 해소” vs “생명, 인간이 결정 못해”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조력존엄사’ 세미나서 공정·부정 입장 발표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원장 이근복)가 최근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에서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조력존엄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환영사, 세미나 취지,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해와 법률 소개, 기조강연,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형은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개회기도를 드렸으며 이어 이근복 원장이 세미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해용 목사(사단법인 라이프호프 사무총장,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가 부원장)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해와 법률을 소개했다.

안 목사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주변에서 치매나 말기 질환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는 경험은 이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최근 대중문화 속에서도 의사 조력 사망 같은 주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며 사회적 관심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 달리,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윤리적 신앙적 시각은 여전히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안락사, 조력 사망, 존엄사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부

터 혼란이 큰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수용하는 소극적 방식에 가깝고, 이는 이미 법적으로 시행 중이다. 반면 의사가 치사 약물을 투여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도록 돋는 방식은 국내에서 여전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는 조력 사망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사회적 논쟁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력 사망을 찬성하는 쪽은 자가결정권, 무의미한 고통의 해소, 품위 있는 죽음 보장을 강조한다. 반대하는 쪽은 생명의 주권을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 사회적 약자가 제도에 떠밀릴 위험, 의료기관과 돌봄 체계 약화 문제 등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은 말기 환자 진통제 처방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환자가 느끼는 극심한 고통이 조력 사망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 체계의 부족 역시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사회적 논의가 조력 사망 쪽으로 쏠릴 경우, 마지막 순간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조력존엄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된 현장의 모습. ©최승연 기자



안해용 목사(사단법인 라이프호프 사무총장,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가 부원장)가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해와 법률을 소개했다. ©최승연 기자



박충구 박사(감신대 명예교수, 생명과 평화 연구소 소장)가 ‘조력존엄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조력사 합법화의 정당성에 대하여’라는 강연을 했다. ©최승연 기자



이길찬 목사(새길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가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자살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최승연 기자

을 전문적 돌봄으로 지원하는 호스피스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내 대형 병원조차 경제적 이유로 호스피스 병동을 충분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

으며, 말기 환자를 위한 영적·정서적 돌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도 존재 한다. 결국, 죽음을 둘러싼 선택을 논의 하려면 법과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적 돌봄, 의료 윤리, 환자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박충구 박사(감신대 명예교수, 생명과 평화 연구소 소장)가 ‘조력존엄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조력사 합법화의 정당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박 박사는 “오늘날 논의되는 ‘조력사’ 개념은 단순한 자살 보조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의료적 도움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자살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줄이고, 인간이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의료적 돌봄을 받는 행위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특별히 캐나다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인간이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철학적 전환이 자리하며,

이는 바로 이런 전통·이상자율성의 충돌과 조정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길찬 목사(새길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가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자살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목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조력자살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몇 차례의 법안 발의가 있다. 2022년에는 기존 연령의료결정법에

조력자살 조항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후에는 별도의 ‘조력존엄사법’이라는 형태로 다시 발의가 이루어졌다. 겉으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만 결국 핵심은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돋는 것을 범으로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가 ‘자살’을 제도적으로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대한 논점이다”고 했다.

이어 “또한 ‘조력존엄사’라는 용어 자체도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있다. 원래는 ‘의사조력자살’이 정확한 표현인데, 자살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 ‘존엄’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붙여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존엄사는 원래 소극적 악착사를 지칭하는 용어였음에도, 지금은 조력자살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용어 선택은 여론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실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좋게 들리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국민 다수가 조력자살 또는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존엄사는 긍정적 단어를 중심으로 묻는 경우 찬성이 80~90%까지 나오지만, 실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다른 대안(예: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을 제시하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보듯,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용어와 질문 설계가 여론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조력자살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이미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끝에 만들어진 ‘연령의료결정법’의 정신을 흔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법은 의료계 윤리학계, 종교계, 정부, 시민단체 등이 10년 이상 논의하여 마련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충분한 숙고를 통해 마련된 기준 제도가 있는데, 이를 무너뜨리는 방향의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며, 생명 관련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LX하우시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
논실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LX Z:IN

생명존중 현장에서 이어지는 마음건강 동행

생명의전화와 마음모음,
상담원 회복 지원과 자살 유족
치유 프로그램 협력 확대



마음모음 지원으로 지난 10월 진행된 ‘청소년 상담채널 ‘라임’ 상담원 힐링캠프’. ©생명의전화



상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 ©생명의전화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과 마음건강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박지은은 마음모음 대표는 “생명의전화와 협력하며 현장에서 혁신하는 분들의 진심을 깊이 느꼈다”며 “이러한 연대는 기업이 추구하는 ‘마음의 건강과 회복’이라는 가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은 “마음모음의 따뜻한 지원은 청소년 상담원과 자살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활동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음모음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사회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생명의전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회복 지원 활동을 확대하며 생명존중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일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오픈 이후 1년 4개월간 누적 상담 건수는 약 1만 6천 건에 달한다. 이 중 2,437건은 고위험 자살위기상담으로 긴급 구조로 이어졌으며, 상담원들은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라임 상담채널은 생명의전화와 삼성금융네트워크가 공동 운영하는 청소년 전문 상담앱으로, 2024년 6월 공식 오픈했다. 현재 약 80명의 상담원이 24시간 365

“열방을 변화시킬 ‘기도행전’의 역사가 이곳에서”

세계기도운동본부, 전북 고창에 세계선교센터 개원

대지 5,000평 건평 2,700평, 500명 수용 규모

개원 위해 2025년부터 약 5년간 ‘기도행전’

김대성 총재 “한국교회 부흥 견인할 플랫폼”



기도행전 세계선교센터가 전북 고창에서 개원한 가운데, 개원예배를 맞아 주요 참석자들이 센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도행전 세계선교센터 개원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세계기도운동본부 총재 김대성 목사가 개원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김문훈 목사가 개원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태희 목사가 축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서

그러면서 “세계선교센터는 바로 이 사역의 허브이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할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집, 세계를 품는 기도의 터’로서 다음세대와 열방을 깨우는 기도의 군대를 일으키는 영적 본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목사가 인도한 이날 예배에선

김동기 목사(세계기도운동본부 부총재)

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

가 ‘기도와 섬김으로 물꼬를

열어라’(사도행전 10: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초대교회 고넬료 한 사람

으로 인해 역사가 달라졌듯이 오늘날도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세계 역사가 달라

진다”며 “이 세계선교센터에 오는 사람들

마다 기도와 성령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세계선교센터를 통해 복음

이 퍼져나가고, 기도와 성령의 불씨가 한

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

지 거룩한 기도행전을 써나가는 세계선

교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기도행전 연혁을 보고한 김호승

목사(갈릴리소명교회, 기도운동

총괄부

회장)는 “기도행전 세계선교센터에서 세

계 열방을 향한 기도운동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기도가 해답’이라는 선언 아래 전국 12개

기독교

가정 세우기

‘다음세대 회복’

‘남북복음통일’

‘120분도 기도운동’

‘300

용사’ 등 다종적 사역을 통해 전국적 세계

적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변곡점에

온다.

김 목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AI는 보조 수단… 복음의 본질 잊지 말아야”

제31회 살롬나비 학술대회 ‘인공지능(AI)과 기독교’ 주제로 개최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 온누리교회 향불회관 화평홀에서 ‘인공지능(AI)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제31회 살롬나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 한계 알고, 선제적 규제 통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먼저, ‘인공지능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김영한 박사(살롬나비 상임대표, 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 명예교수)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중앙한다. 인간은 단순히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를 예배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며 “AI 기능의 제한은 바람직한 길이다.

AI의 자혜로운 자동화는 기술의 제한이며, 인간초월인 포스트휴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포스트휴먼, 신격화 기계라고 부르기보다는 인간과 함께 할 ‘반려 기계’ 정도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독교 신앙은 인공 지능을 개발하는 인간이 전적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인간이 겪는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공지능의 한계를 알고 선제적 규제를 통하여 인류 사회라는 공동체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서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는 이우기 박사(인하 대 산업경영공학과), 김한원 박사(횃소금교회 담임, 서울장신대 겸임교수), 김영선 박사(협성대 명예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았고, 곽혜원(경기대·이일호(칼빈대)·이관표(한세대) 박사)가 논평했다. 특별히 이 일호 박사를 대신하여 배선영 목사(송파가나교회)가 논평문을 낭독했다.

◆AI 도구적 활용 넘어 윤리적 질문에 답하는 재정의 역량 필요

‘AI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우기 박사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신기술 등장에 대해 경계와 거부에서 분별 및 선용으로 이행하는 반복적 패턴을 보였으며, 초기에는 인간 통제의 위협과 종말론적 불안을 과도하게 투영하는 오류도 보였었다”며 “최근 AI의 등장은 기술 특성상 인간의 지능, 언어, 창조성 등 존재 본질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기독교는 신학 해석과 실천에서 여전히 진공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한 도구적 활용을 넘어, AI를 둘러싼 존재론적 그리고 윤리적 질문에 답하는 재정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교회는 인간의 존엄과 신앙의 본질, 공동체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신앙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며, 신학적 윤리와 공동선의 관점에서 AI 발전, 그리고 기독교 소비된 AI를 적극적으로 논의



제31회 살롬나비 학술대회 참석자 기념 사진. ©살롬나비



제31회 살롬나비 학술대회 진행 사진(왼쪽부터 김영선 박사, 김한원 박사, 이우기 박사, 유종필 박사, 이상원 목사, 이관표 총무, 권요한 박사). ©살롬나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는 이미 설교작성, 번역, 자료조사, 행정, 목회, 돌봄 등 다양한 교회 사역에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되, 영적 분별과 인간 중심의 관계, 신뢰, 공감, 영혼의 돌봄 등은 여전히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는 AI에 대한 신학 교육, 기술 정의의 실천, 신학 및 윤리 연구, 공동체 중심의 영성 모델을 제시하며, 복음적 철지기로서 기술과 영성을 함께 가진 인지의 양성과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앞장설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요구된다”고 했다.

◆AI 시대, 도전이자 기회

‘인공지능(AI)시대, 기독교의 목회와 설교’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한원 박사는 “AI 시대는 도전이자 기회이다. 교회는 이

시대에 뒤쳐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과 사랑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그렇다고해서 기술을 너무 깔보거나 우상화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AI가 말씀의 배움과 복음의 전달을 위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길의 출발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기술을 복음의 종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암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중심에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중심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며 “마태복음 16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는 시대를 분별’ 할 줄 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서 가지고 발휘해야 할 때이다. 즉,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는 바로 그 ‘때를 따라 암식을 나누는 종’이다”라고 했다.

김 박사는 “AI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신앙에 위협이 되는 그런 때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고 그림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말씀의 힘과 복음의 전파가 가능한 때이기도 하다”며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고고한 흐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당신의 교회에게 요구하신다. 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고 분별 있는 공동체, 말씀 위에 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회, 바람직한 AI 개발과 사용에 대한 고민 필요

‘인공지능(AI)과 윤리·기독교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영선 박사는 “2020년 교황청은 ‘AI 윤리를 위한 로마 콜(Rome Call for AI Ethics)’을 발표하였다”며 “로마 콜은 신기술은 인류에 봉사한다는 원칙하에 연구되고 상용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AI 사용을 위한 6 가지 원칙으로 투명성, 포용성, 책임성, 공정성, 신뢰성,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IBM의 AI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 네이버 윤리 준칙,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한국기독교학회 제53차 정기학술대회 참여 신학자들이 제시한 ‘AI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기독교학회 성명서’,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가 작성한 ‘인도주의적 활용에 관한 신학자 성명서’ 등에서 중시되는 윤리적 관점을 설명하며 다음 8가지로 정리했다.

▶ AI의 개발과 사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AI의 개발과 사용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AI의 개발과 사용이 안전성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AI의 개발과 사용이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AI의 개발과 사용이 자연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 AI의 개발과 사용이 강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AI의 개발과 사용이 불평등을 심화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AI의 개발과 사용이 거짓을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김 박사는 “이런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없다면 AI의 개발과 사용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 좋은 AI라는 개념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AI 개발과 사용에 대한 교회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에 조정 당하는 자’가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

발표회는 유종필 박사(살롬나비 공동 대표, 동산교회 담임)를 사회로, 권요한 박사(서울대 학원선교사)가 토론자로 참여한 종합토론 순서로 마무리됐다.

한편,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는 김유태 사무총장(백석대, 전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배선영 목사(송파가나교회)·박홍기 박사(오이코스대 교수)·육호기 목사(GMS 원로선교회장)가 한국교회사·세계선교와 난민을 위해 각각 기도했고, 이상원 목사(월드뷰 대표 주간, 전 총신대 교수)의 설교, 이관표 총무(한세대)의 강령제창, 김유태 교수의 광고, 김중석 목사(사랑교회 원로, 북세연 사무총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바벨탑과 과학기술(창 11: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상원 목사는 “사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법, 교육, 언론, 국가, 과학, 기술, 예술, 철학, 신학, 윤법, 복음, 신구약성경 등 사탄의 교활한 전략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은 없다”며 “AI도 당연히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 받은 우리들은 이성과 연산의 배후 깊은 곳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영적 안목을 잊지 않으면서 매우 주의 깊은 태도로 과학기술의 결과물들을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선용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자동 기자

동아제약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증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생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경옥고

이랜드복지재단-분당우리교회, 위기가정 돋는 민·교회 협력 강화

이랜드복지재단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우리교회가 얼마 전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2021년 첫 협약 체결 이후 5년 동안 공동복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총 203가정에 4억 1천만 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연계해 왔다. 올해 다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그 동안의 공동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정교화하기 위한 취지다.

분당우리교회는 매년 약 4억 5천만 원의 자체 재정으로 ‘긴급구호뱅크’를 운영

하며, 지역 주민센터 등 5개 거점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위기가정을 돋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이랜드복지재단의 긴급구호 플랫폼 ‘SOS위고와 연계되면서 지원 접근성과 대응 속도를 크게 높였다.

SOS위고는 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자립지원비 등을 신속히 배정하는 민간형 긴급지원 시스템이다. 추천 접수 후 현장 실사와 지원 확정까지 3일 이내 처리, 긴급 물품은 24시간 내 전달하는 등 기민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도움을 받은 가정 가운데 94%가 일상 회복 단계로 이어진 실제 사례는 현장 중심 지원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분당우리교

회는 지역의 급박한 필요에 가장 먼저 반응해주는 든든한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선영 기자



사랑의교회 장로·집사·권사 400여 명 임직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지난 26일 장로 6명, 인수집사 111명, 사무권사 283명을 세우는 2025 임직현신예배를 드렸다고 교회 측이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배에서 설교한 장봉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가족구성원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마음을 쓰고 헌신해야 하는데 직분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랑의교회는 대 가족이기에 임직한 모든 분들이 더욱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고 생했다”며 칭찬

전하고 주님의 인격을 전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모두가 헌신하자”고 전했다.

박성규 목사(총신대 총장)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살리는 사명자가 되자”고 밝혔다.

이어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전 대표회장·영안교회 담임)는 “하나님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사람을 찾으셨다.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사랑의교회 2025 임직현신예배

받는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장봉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는 축사 및 권면에서 “임직자들은 피의 복음을

구미시청 원형화단, 성탄 앞두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불 밝혀

점등식 통해 시민에게 새해 희망과 기대 전한 구미시

경북 구미시청 원형화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따뜻한 불빛으로 물들었다. 구미시는 김장호 시장과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마영건 목사, 그리고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매년 연말이면 열리는 점등식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높이 10m, 폭 16m 규모로 조성돼 원형화단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트리는 매일 일몰과 함께 불을 밝히며 오후 11시까지 점등된다. 구미시는 내년 1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트리가 겨울철 도심 야경의 중

심이 되어 시민과 방문객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트리 점등식에 대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시민과 나누고, 새해를 앞두고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를 설명했다. 연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함께 자리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점등식에서 김장호 시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함께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새해를 맞아 시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했다.

구미시청 원형화단의 대형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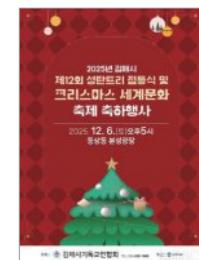
경북 구미시청 원형화단에 불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 ©구미시

트리는 도심 곳곳을 밝히는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하며, 겨울철 구미를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정취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김해에 펼쳐질 겨울의 빛, 제12회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대형트리·세계음식 체험
다국적 공연으로 다문화도시
김해의 연말을 밝힐 예정



제12회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가 오는 12월 6일부터 27일까지 김해시민의 종과 분성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김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경남도와 김해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김해가 가진 다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김해시민의 종 주변에는 대형트리가 설치돼 겨울 도심을 밝히고, 분성광장에는 각 나라를 테마로 꾸민 트리와 조명 장식이 설치돼 한층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각국의 문화적 색채를 반영한 조형물과 조명들은 방문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첫날에는 카보디아, 네팔 등 8개 국 침가자들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의상 행진이 분성광장에서 시작되며, 이어 점등식과 더불어 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음악과 춤으로 축제의 문을 열 예정이다. 다국적 공연팀의 무대는 올해도 김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불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는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도시로서의 김해를 더 넓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교구협의회, 홍대 레드로드 '빛거리 점등식' 2일 연다

신덕교회·애능중앙교회 등 참여… 음악과 빛 어우러진 밤 연출
마술 공연·찬양·합창 이어지는 구간별 점등식… 연말 분위기 더해



서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R1~R10) 관광특화 거리이다. 이번 '빛거리'가 열리는 R1부터 R5까지 수목 조명과 다양한 형태의 빛 조형물을 배치해, 지역 주민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겨울철 마포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오후 6시 30분 화려한 마술 무대로 문을 연다. 이어 7시부터는 ▲빛거리 소개 ▲박강수 구청장 인사말 ▲내빈 축사 ▲김양태 교구협의회장의 축사와 기

도 순서가 진행된다.

점등식 이후에는 신덕교회(담임 김양태 목사)의 찬양 무대와 애능중앙교회(위임 장찬호 목사)의 트럼펫·성가대 공연이 이어지며, 참여자들은 카운트다운과 함께 레드로드에 첫 불을 밝힌다.

R2 구간에서는 신덕교회의 색소폰 연주와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의 독창 무대가 마련되고, R2 빛거리 점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R4에서는 서진교회(담임 백철호 목사)의 색소폰 연주 후 빛이 켜진다. 마지막 R5에서는 한국기독남성합창단(단장 여 익환)과 성현교회(담임 조보섭 목사)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이 마련된다. 백선영 기자

월드뷰티핸즈·엘드림노인대학, 민들레 토크쇼 개최

독거노인 및 쪽방촌 거주 어르신을 섬기는 소셜서비스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와 무료급식 사단법인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신생명나무교회 목사)이 최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민들레 토크쇼 첫 강의를 개최했다. 민들레(민豫이가 들어주는 내 이야기) 토크쇼는 상담학을 전공한 장민豫이 사우총장(신생명나무교회 전도사)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한 '고독생프로젝트'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서 독거노인 및 쪽방촌 거주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64%에 달하는 지역사

희(대흥동)에서 가장 고독하고 사회와 단절된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 내면의 희노애락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형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 사단법인 해돋는마을,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대흥동주민센터, 그리고 대흥동교동협의회가 지난 2022년부터 함께 준비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는 엘드림노인대학은 우울증과 치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 사각지대 현장에서 생명지킴이



장민豫 사무총장이 민들레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해돋는마을

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실천적 교육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등 다양한 의사표현 기법을 경험하고 발표하는 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동두천시, 교회 중심으로 의료취약층 찾아간다

교회 공간 활용해
지역 어르신 진료 지원

편해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수요 예배를 보러 왔다가 그동안 걱정되던 건강 문제를 바로 상담할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동두천시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닥터GO’ 이동병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닥터GO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동두천 동성교회(담임 양영주 목사)에서 의료취약계층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이동병원은 동성교회 인근 지역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내과 전문의 진료, 치과 검사, 상담 및 처방, 간단한 약 조제,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검진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다리가 불

백선영 기자



동두천시 ‘닥터GO’ 이동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을 상담하고 있다. ©동두천시

B E Y O N D
ENTERTAINMEN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풀러스친구

카카오톡 풀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한인타운 문화 쉼터, 46개의 벽을 허물고 ‘빛’을 들이다

전시와 휴식을 잇는 감각적 카페 공간 'Cafe du Gallery'

LA 한인타운 크렌肖(Crenshaw)길과 올림픽 대로와 피코 대로 사이, 과거 46개의 방으로 조개져 아둡고 밀폐되어 있던 노래방 건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곳은 햅살이 쏟아지는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림이 걸리고, 음악이 흐르며, 커피 향이 감도는 곳. 유니스 김 관장(LA 미라를 교회 권사)이 이끄는 ‘EK 갤러리’의 이야기다.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한인 커뮤니티에 문화 쉼터를 제공하고 싶다는 유니스 김 관장을 만나, 이 공간에 얹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은퇴 후 마주한 우연한 소명, “돈보다 나눔이 먼저”

유니스 김 관장은 치열한 패션계에서 수십 년을 보낸 디자이너였다. 1년 뒤 유행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숨 가쁜 삶에 지쳐 은퇴를 결심했을 무렵,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나눔’이었다.

“중앙일보와 함께 노숙자를 돋기 위한 자선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런데 타운 내에 마땅한 전시장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대관료는 터무니없이 비쌌고요. 비싼 렌트비를 내고 나면 정작 어려운 이웃은 어떻게 돋나 싶었죠.”

그때 지금의 장소를 만났다. 원래는 답답한 칸막이로 가득 찬 유흥업소였지만, 김 관장은 과감하게 모든 벽을 허물었다.

46개의 방을 뜯어내고 벽을 뚫어 창을 내자, 건물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이곳을 돈 없는 작가들도 꿈을 펼치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갤러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무대”

EK 갤러리는 전형적인 ‘하이트 큐브’의 엉숙한 대신 열린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김 관장은 이곳을 ‘다목적 커뮤니티 타운’

이라 정의한다.

높은 천장과 오픈형 구조의 1층 이벤트홀은 각 행사의 특성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다. 음향과 조명, 벽 한면을 차지한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대형 작품 전시는 물론, 젊은 연극인들의 무대, 패션쇼 런웨이, 결혼식과 파티, 기업 세미나, 지역 사회를 위한 의료 세미나를 위한 장소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악기를 갖 배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연습할 곳 없는 밴드, 무대가 필요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명석을 같아주고 싶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겐 대관료를 받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단체엔 기꺼이 무료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 감각적인 ‘Cafe du Gallery’

갤러리를 둘러보다 출출해지면 바로 옆 ‘Cafe du Gallery’로 발길을 돌리면 된다.

메뉴에는 패션 디자이너 시절 유럽 출장을 다니며 맛본 미식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프랑스식 ‘크레페(Crepe)’와 명란을 듬뿍 넣은 ‘명란 파스타’, 그리고 그가 직접 개발한 건강식 ‘레이인보우 샌드위치’는 이곳의 시그니처다. 고구마와 아보카도 등 건강한 재료로 채운 샌드위치는 특히 외국인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시회 왔다가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소풍 온 것처럼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으며 수다도 떨고, 그림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 “문화를 즐기는 삶, 한인타운의 레벨을 높이다”

김 관장은 15년 경력의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패션 비즈니스를 하면서 출장이 잦았던 그는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기억을 기록하듯 셋터를 눌렀다. 별단



E.K. 아트 갤러리. ©E.K. 아트 갤러리. ©갤러리 측 제공

유니스 김 관장. ©갤러리 측 제공



EK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우리(Woori: United by Art)’ 그룹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13명의 다양한 인종 작가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되는 주제를 다뤘다. ©갤러리 측 제공



E.K 갤러리 전시 작품 풀 아트 리 목사의 작품. 아래는 아트샵과 Cafe du Gallery. ©갤러리 측 제공

이 쌓여있는 농촌 풍경부터 요세미티의 빛 내림까지, 풍경을 기록해온 그는 이제 그 시선을 지역 커뮤니티의 성장으로 돌리고 있다.

또, 한인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구상 중이다. 여성들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문화를 즐기고 교류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나누는 꿈꾼다.

그는 한 사람의 삶을 갈무리하는 장례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EK 갤러리 이벤트홀에서 진행된 타인종 커뮤니티의 행사를 지켜보며 얻은 깨달음이다.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검은 옷을 입고, 얹숙하고, 슬퍼해야만 효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열리는 미국인이나 타 인종의 장례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영상을 틀어놓고 생전의 모습을 추억하며, 밴드를 불러 춤을 추고 파티를 엽니다.”

처음엔 그도 “장례식장에서 춤을?”이라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남은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다.

“검은 옷 대신 밝은 옷을 입고, 통곡 대신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즐기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메모리얼(Memorial)’이군요.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는 ‘메모리얼 파티’. 우리 한인들도 장례 문화를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세인트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개최

세인트미션대학교(총장 박상원 박사)가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에 뉴욕 헐러싱 소재 GLF센터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차요한(호준) 목사에게 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차요한 목사는 세인트 미션 대학교 학점교류에 의해 박사과정이수 학점을 취득했고 박사학위 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사도 요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사건에 대한 역사

적 연구(A Historical Study of Christian Events from the Birth of Jesus to the Death of the Apostle John)’이 심사과정으로 통과되어 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제1부 박사학위수여식은 케빈 최 목사(뉴욕 충청향우회 회장)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찬양사역자 김영환 전도사의 특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개회기도로 시작했다. 박상원 총장은 차요한 목사

에게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이어 한국어 유엔 공용어추진연합 뉴욕지부장 김순상 권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원 총장은 “세인트 미션대학교 신학박사로 학위를 취득한 차요한 목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1911년 9월 3일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뉴욕 엘리스 아일랜드 뉴욕에 도착했을 때 한인들이 있

었으며 그 당시 우리 한민족도 나라가 없었고 유대인들도 나라 없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막강한 힘을 촉축했으나 우리 미주한인들은 여러 면에서 분발해야 할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미주한인의 이민역사가 4세대로 이어지는 현재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말하고 쓸 줄 알아야 할 수도 너무나 많은 후손들이 우리 말과 글로 소통하지 못함을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한국어 유엔 공용어 채택을 뉴욕본부에서 이루어야 하기에 미주한인들이 앞장서 단결해야 한

다”라고 환영사를 했다.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차요한 목사가 답사했고 최은종 목사, 송병기 목사, 이희선 목사가 짧은 축사로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은혜로 학위수여식을 기쁘게 했다. 제2부 감사예배는 케빈 최 목사 사회와 북도로 시작했으며 주제연 목사가 대표 기도를 했다. 성경 봉독은 이희선 목사가 ‘니모데 후서 312-17’를 한글과 영어로 봉독했다. 찬양사역자 김영환 전도사가 주기도문(The Lord’s Prayer)을 특송했고 송병기 목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기하라’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은종 목사의



왼쪽은 박상원 총장, 오른쪽은 차요한 목사. ©학교 측 제공

죽도로 예배를 마치고 제3부는 만찬으로 송병기 목사가 식기도했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 수익률 14.67 %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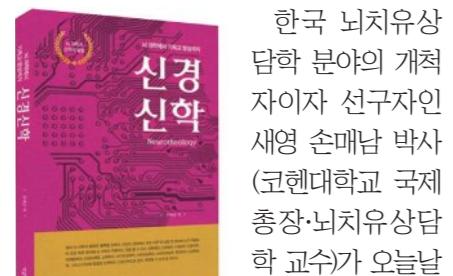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복음주의 신앙과 영성을 뇌과학과 연결한 국내 최초 '신경신학' 발간

지난 29일 새영 손매남 박사
저서 '신경신학' 출판기념
감사예배 드려



한국 뇌치유상담학 분야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인 새영 손매남 박사(코헨대학교 국제총장·뇌치유상담학 교수)가 오늘날 대부분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경과학과 뇌과학에 복음주의적 신앙과 영성을 융합한 '신경신학(神經神學)' 분야를 연구한 역작을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3년 전 뇌과학과 목회학을 융합한 신경 목회학에 이어 이번에 360쪽 분량의 '신경신학'(에셀나무)을 출판한 손 박사는 25년간 뇌과학과 기독교상담학을 접목한 뇌치유상담학 분야에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 왔으며, 학술 연구와 강의, 방송, 저술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현재 한국상담개발원(KCDI) 원장,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IBPS) 회장, 한국에너그램상담학회 회장, 창조하는교회 담임목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치유상담사리즈인 목회정신병리학 외 10권, 뇌치유상담사리즈인 뇌치유상담학 등 16권,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등 뇌 관련 단행본 7권 등 총 45권의 저서가 있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4층 소망실에서는 한국상담개발원(KCDI)이 주관, 코헨대학교 국제부(CUTS ID)가 주최하고 국제뇌치유상담학회(IBPS), 극동방송 등이 후원한 '새영 손매남 박사 신경신학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국내외 목회자, 교수, 제자 및 가족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예배는 김강진 박사(코헨대)의 사회로 정성모 박사(ECUA)의 기도, 조미령 박사(코헨대)의 축하송, 박종연 박사(한국상담개발원 교수·코헨대 교수)의 성경봉독 후, 코헨대학교 총장 폴 강(Paul Kang, 한국명 강신권) 박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강 총장은 '치료하는 광선' 말 420이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이 더해지면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 창조적 기적이라는 말은 시대별, 상황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맞춤

형 기적을 주시는 것"이라며 "제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간 지 올해로 50주년으로, 50년간 제가 가르친 모든 신학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강 총장은 추천사를 통해 "손매남

박사가 평생 신경신학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살펴온 학자이며, 신경신학은

신경신학은 신경신학은 신경신학은

신경신학은 신경신학

영거리 설교자, 반무슬림 발언 혐의 ‘무죄’… “표현·종교의 자유 보호해야”

영국에서 거리 설교 도중 무슬림을 향해 혐오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설교자가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잉글랜드 남서부 스윈던 크라운코트는 약 6일간의 재판 끝에 36세 설교자 손 오설리번(Shaun O'Sullivan)에 대해, ‘종교적 동기를 가진 의도적 괴롭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설리번은 지난해 9월 15일(이하 현지 시간) 스윈던 시내에서 설교하던 중 무슬림 가족에게 “우리는 유대를 사랑한다”, “유대인 혐오자”,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등의 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영국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 컨센(Christian Concern)’이 밝혔다. 해당 가족은 하잡을 착용하고 있어 자신들이 특정해 공격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당시 신고 전화에서 혐오 범죄

로 분류됐다. 제보자는 신고 과정에서 전쟁 상황에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아주 불안했다. 우리를 유대인 혐오자, 팔레스타인 지지자라고 불렀다”고 말했으며, 접수 담당자는 추가 증거 없이 “혐오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설리번 측은 크리스천 컨센 산하 ‘기독교 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 변호인단과 함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 가족의 증언에 의존했지만, 발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영상, 음성 증거는 없었고, CCTV 역시 조형물에 기여 대부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같은 사건을 증언한 가족들의 진술에서도 마이크 사용 여부, 오설리번의 옷 색상 등이 서로 달랐다고 법정은 밝혔다.

교자 신문 과정에서 주요 증인은 오설리번의 설교 전체를 듣지 않았다고 시인했으며, 자신의 진술이 이스라엘 하마스

증인은 “그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 화가 났다”고도 진술했다.

재판은 가지지구 분쟁과 10월 7일 하마스 공격 1주년을 앞두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스윈던 지역에서는 최근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잦았다.

오설리번 측은 그의 설교가 특정인을 겨냥한 괴롭힘이 아니라 유럽인권협약(ECHR) 9·10·11조에서 보호하는 ‘종교적·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거 범죄 생활에서 회심한 뒤 거리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는 마틴 파슨스(Martin Parsons) 신학자가 전문가 증언을 통해 “영국에서 거리 설교는 역사적으로 보호 받아온 종교적 관행이며, 이를 처벌할 경우 종교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 문서에서 이슬람 경전 속



손 오설리번(우)과 그의 변호사 마이클 필립스(좌). ©Christian Concern 제공

반유대주의적 요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설리번의 발언이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 해석에 기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죄 선고 후 오설리번은 “나는 한때

길을 잊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꾸셨다.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며, 해를 기칠 의도는 없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기독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말

했다. 이번 재판에는 약 2만 파운드(약 3만4천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법률센터 대표 앤드리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는 “이 사건은 증거가 아닌 ‘인식’에 따라 혐오 범죄를 판단하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공적 토론이 침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 통의 신고만으로 혐오 범죄가 성립된 점을 지적하며 “공적 발언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설리번은 지난해에도 글래스터 버리에서 기독교 설교 중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오설리번과 동료 설교자 존 데니(John Dunn)의 비용을 국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미경 기자

교회 출석 금지한 양육권 명령에 美메인주 싱글맘 항소

미국 메인주에서 한 싱글맘이 딸을 지역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금지한 하급심 판결에 맞서 항소했다. 법원이 해당 교단을 ‘컬트(cult·사이비 집단)’로 규정하고 아버지에게 종교 활동 결정권을 넘긴 데 따른 조치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에 따르면, 에밀리 빅퍼드(Emily Bickford)는 지난해 12월 메인주 지방법원의 양육권 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메인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리버티 카운슬은 현재 빅퍼드의 항소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가 된 명령은 빅퍼드가 12세 딸을 메인주 포틀랜드의 갈보리 채플(Calvary Chapel)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금지하고 딸의 아버지 매튜 브라딘(Matthew Braeden)에게 ‘갈보리 채플 관련 종교 활동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 내용이다.

리버티 카운슬 창립자 매트 스테이버(Mat Staver)은 “갈보리 채플은 컬트가 아니다”라며 “성경 가르침을 이유로 기독교 교회 출석과 성경기독교 문헌 접촉까지 금지한 이번 명령은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명령은 종교 자유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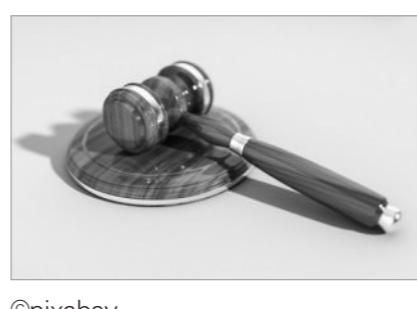
지난 11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빅퍼드 측 변호인단은 하급심 판결이 “종교적 원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항소 문서에 따르면 하급심 법원은 빅퍼드의 신앙을 “컬트적이며 심리적 위해를 준다”고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딸의 종교 교육에 대한 빅퍼드의 기본 권리를 박탈했다.

브라딘은 딸이 다니는 교회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성경을 장발·절별로 가르치며 자よ·사탄·영적 전쟁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 사회학자 앤야 라리치(Janya Lalich)를 전문가 증인으로 선임했다.

랄리치는 갈보리 채플을 ‘닫힌 사회 체계’로 규정하며 “모세 모델(Moses model)”을 따라 목회자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하급심 법원은 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이고, 교회 설교가 “혐오적 언사, 동성애 혐오, 과학 거부, 공립학교에 대한 적대”를 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급심 법원은 교회 출석이 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근거



©pixabay

중 하나는 예배 중 목회자가 양육권 소송을 놓고 빅퍼드 모녀에게 기도한 일이 있다. 또한 브라딘은 딸이 교회 참석 이후 공황 증세를 보였고, 집에 “휴가가 곧 온다”는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버티 카운슬은 하급심이 “빅퍼드가 신앙 때문에 의료적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신앙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갈보리 채플은 전 세계 수백 개 교회를 가진 복음주의·은사주의 연합체로, 1960년대 척 스미스(Chuck Smith)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다. 그는 ‘예수 운동(Jesus Movement)’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이 운동은 2023년 공개된 영화 ‘Jesus Revolution’의 중심 배경이기도 하다.

이미경 기자

美결혼 감소했지만 ‘결혼 욕구’ 여전 동거·재혼 증가로 가족 형태 변화

미국에서 결혼 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동거, 재혼 증가로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결혼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은 아니라고 바나 연구소(Barna)가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바나가 다년 연구 프로젝트

‘번영하는 가족’이나셔티브(Flourishing Families Initiative)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고서 ‘오늘날 가족의 현황(The State of Today's Family)’에 담겼다. 연구는 전국 여론조사를 토대로 미국 내 관계 및 가정의 다섯 가지 주요 변화와 이에 따른 교회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의 46%가 결혼한 상태로, 이는 미 인구조사국의 51%와 비슷한 수치다. 1950년에는 약 3분의 2가 결혼 상태였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세 초반, 여성은 29세로 1950년보다 약 8년 늦어졌다. 연구진은 이를 인해 “성인기에서 비혼 기간이 잠시 지나가는 단계가 아닌, 긴 삶의 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인의 약 18%가 이혼 경험이 있지만, 그중 55%가 재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현재 이혼 상태인 사람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1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수치는 결혼이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결혼 증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교회는 이혼 이후뿐 아니라 재혼 과정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결혼하지 않은 채 연인과 함께 사는 미국 성인은 8%로, 1970년 거의 0%였던 것에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소수에 속한다. 그러나 인식은 달라졌다. 바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58%, 실제 신앙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중 42%가 “결혼 전 동거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변화는 교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의 46%가 결혼한 상태로, 이는 미 인구조사국의 51%와 비슷한 수치다. 1950년에는 약 3분의 2가 결혼 상태였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혼과 이혼 관련 기독교인의 경험은 일반 인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신앙 인과 비실천적 기독교인의 약 20%, 실천적 기독교인의 16%가 이혼 경험이 있다. 이어 “문화적 정의가 변화하는 시대, 교회가 할 일은 결혼을 수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반영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한국동서발전 | 주



자원영토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고환율 속 해외주식 양도세 논란 확산

환율 방어 발언 후 투자자 반발 증폭

정부 “추가 과세 검토 안 했다” 해명에도 혼선 지속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투자자들의 불만이 급격히 확산했다. 현행 제도상 해외 주식을 팔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미 상당한 세 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과세까지 거론되자 “과도한 책임 전가”라

는 비판이 빠르게 커졌다.

이정용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그는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이는 금리차나 외국인 때문이 아닌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서학개미들에게 직접적 부담을 둘린다는 비판을 낳았다.

상황이 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하위 담화문까지 확산되며 혼란이 더욱 커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명백한 하위”라고 밝혔고, 법적 대응도 예고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27일 “해외주식 양도세 추가 과세는 검토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자금 유출 억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국내 개인의 해외투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9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개인 해외주식 거래액 역시 2019년 410억 달러에서 지난해 5308억 달러까지 급증

했다. 외화예수금도 올해 6월 기준 11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

투자 비중은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M7)’ 등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미국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장기 상승 기대가 국내 투자자의 선택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보다는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 인하, 증권거래세 감면 또는 면제, 모험성장 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해외 투자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 보유 세율 인하나 모험자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국내 투자 매력을 높여 서학개미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시장 제도 개선 등이 병행돼야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이나래 기자

미국,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역량 확대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 후폭풍 수습
비자 인터뷰 5천건 추가 소화 조치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인 대상 사업 목적 비자 발급 역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 인력을 증원해 평상시보다 5천건 이상 많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 사태 이후 후속

대응의 성격을 띤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사용(B-1) 비자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판단해 구금했다. 감작스러운 단속으로 노동자들은 일주일 가까이 구금된 뒤,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이

뤄지고 나서야 귀국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분위기에도 불확실성을 키우며 후폭풍이 계속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미국 이민 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출장 및 투자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기준을 유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산영화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부는 ‘추가 인터뷰 5천건’의 기준 기간이나 기준 처리 규모 등 세부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원된 인력 규모 또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조지아 단속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NYT는 구금됐던 한국인 상당수가 다시 미국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회사 배치에 따라 일부 인력은 현장 복귀를 준비 중이다.

이번 비자 발급 확대 조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대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9월 12일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고 있다. ©뉴시스

한 신뢰 회복과 실무적 조력이라는 점에 속에서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예상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홍은혜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꽉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불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사용 7일 후, 인체 적응 시험 결과 [사용기간] 2023.01.25~2023.03.10 [사용내용] 성인 여성 30명 [사용기간] [주]글로벌여학연구센터]

집값 상승에도 소비는 멈춘 한국 경제

한은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 민간 소비 매년 최대 0.44%p씩 둔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민간 소비의 회복력을 매년 최대 0.44%포인트 씩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한국은행 조사국 구조분석팀 김찬우·박동현·주옥·유성현 연구원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포인트 증가해 중국과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오히려 1.3%포인트 줄어들어, 부채 부담이 소비 여력을 짐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만약 가계부채를 2012년 수준으로 유지했을 경우 지난해 민간 소비

가 실제로 4.9~5.4% 더 높았을 것이다. 주정도 내용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 둔화(0.8%포인트)와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제약(0.4%포인트)이 최근 민간 소비 성장률 하락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지속적으로 억누른 이유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최근 10년간 원리금부담비율(DSR)이 급격히 상승해 가계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빠른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 이 부담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둘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부의 효과’가 극히 낮다는 점이다. 주요국에서는 집값 상승이 소비를 0.03~0.23% 증가시키는 반면, 한국은

0.02%에 불과했다. 주택을 유동화할 금융수단이 부족하고, 집값이 올라도 주거 수준 개선이나 소비 확대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셋째, 대출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이 소비보다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실물 자산 투자로 흐르며 오히려 가계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킨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실통증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상환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찬우 차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서서히 소비를 움츠러뜨리는 동맥경화와 같은 형태”라며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면 부채 누증이 완화되고 소비 제약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 경제가 ‘부채의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순한 부동산 시장 대응을 넘어 가계부채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나래 기자

1인 가구 급증과 고령사회 심화, 인구 구조 변화 속도 빨라져

통계로 드러난 인구·복지·교육·보건 전반의 구조적 전환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36%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 구조가 빠르게 고착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 2,229만 4,000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 2020년 31.7%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 2021년 33.4% ▲ 2022년 34.5% ▲ 2023년 35.5% ▲ 2024년 36.1%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42년에는 국내 1인 가구가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

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0.1%로 ‘5명 중 1명 노인’ 시대가 현실화된 셈이다. 노인 가구 중 독거노인 비중도 32.8%를 기록하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민 및 외국인 현황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23만 4,506명이었고 결혼 이민자는 18만 72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1,127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다가 반등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육 환경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해 2만 7,387곳으로 2013년 4만 3,770곳 대비 크게 줄었다. 감소 추세는 ▲ 2020년 3만 5,352곳 ▲ 2021년 3만 3,246곳 ▲ 2022년 3만 923곳 ▲ 2023년 2만 8,954곳 ▲ 2024년 2만 7,387곳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됐다.

교육 지표에서는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 44만 2,000원, 중등 49만 원, 고등 52만 원으로 전 학령에서 사교육비 증가가 이어졌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난해 의사 수가 10만 9,274명으로 전년 대비 5,425명 감소했다. 반면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는 18건으로 OECD 평균(6.7건)의 약 2.7배에 달해 의료 이용량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237조 6,000억 원으로 국가 전체 지출의 36.2%를 차지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정책 조정과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나래 기자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무단 노출… 경찰·정부 동시 조사 착수

소비자 불안 확산 속 “결제정보만 강조하는 대응” 비판
민관합동조사단, 사고 원인·재발 방지 대책 마련 나서

쿠팡에서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과 정부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은 쿠팡이 “결제정보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보상 대책이나 경위 설명이 부족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쿠팡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고소장에는 특정 피고소인 대신 성명불

상자가 적시되었으며,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유출 경위 전반을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쿠팡은 지난 18일 4500여 개 계정의 일부 정보가 무단 열람된 사실을 처음 파악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이름·이메일·배송지 주소록 등이 노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쿠팡은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30일 오전 고객들에게 “결제정보는 안전하며 비인가 조회 여부를 당국과 함께 조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대응이 상황의 본질을 흐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 윤모(25岁)씨는 “사이트에는 공지도 없어 문자 자체가 피싱처럼 느껴졌다”며 “정작 유출 피해를 받은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보상이나 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1岁)씨도 “이

름전화번호·주소 같은 핵심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쿠팡은 “결제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이용자 이모(45岁)씨는 “범죄

악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보들인데도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과 29일 두 차례 쿠팡으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했으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스 마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호나라’를 통해 긴급 보안 공지를 발령했다.

이나래 기자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쿠팡의 사실상 모든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은 고객 계정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쿠팡은 지난 18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발표했는데, 11일 만에 노출 계정이 약 7500배 늘어난 것이다. ©뉴시스

첨단산업 경쟁 격화 속 금산분리 완화 논쟁 재점화

재계 “대규모 투자 위해 규제 유연화 필요”
전문가·공정위 “특혜·경제력 집중 우려, 신중 접근해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재계는 세 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력 중심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금융자원의 사금고화 우려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발단은 이제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의 회동에서 “AI 투자의 규모가 위나 커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독점 폐해를 방지 할 안전장치를 전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관련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제한해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산업 부문의 부실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

해 1980년대 도입된 제도다. 특히 SK 등 지주회사 체계를 운영하는 대기업에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있다.

재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모든 금융업 소유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기업의 투자 능력을 저지른다고 지적한다. AI와 반도체 분야는 장기·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기업의 자기자본이나 차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가 함께 참여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처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협업해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재계는 일반 지주회사가 투자회사(GP)를 설립해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대기업의 축적된 경영 경험과 기술 역량이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되면 혁신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대기업이 금융기관 및 정부 펀드와 함께 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진주동 신한금융 회장 역

시 “CVC를 금산분리로 묶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일부 도입된 CVC 제도는 변화

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사례이지만, 지주회사의 100% 지분 소유 의무, 외부 투자금 40% 제한, 부채비율 200% 규제 등 제약이 여전히 많아 활용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SK하이닉스 등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지분으로만 보유해야 하는 규제 역시 완화 요구의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제한적인 금산분리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근본 원칙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정한 한양대 교수는 “보조금 중심의 미국식 지원정책은 한국 재정 여건상 현실적이지 않다”며 “재벌 사모펀드가 무리한 사업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면 일부 규제 완화는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규제 때문에 내부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중 접근을 요구하는 시각도 강하다. 산업자본이 펀드를 운용할 경우 금융자원이 사외 추구에 활용될 가능성, 금융회사가 재벌 계열사의 무리한 확장이나 내부 지원에 동원될 우려 등이 그 이유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기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광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처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는 규제 유연화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론을 고수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제도를 일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몰 조항을 뒤 한시적으로

은 자체 이의 기반의 R&D와 혁신 투자”

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도 금융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AI 등 첨단산업 투자에 한정해 한시적 예외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지원해 한시적 예외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며 “계열사 지원이나 부당 자산 이전을 막을 구체적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내년 한국 수출, 미·중 통상 충격에 흔들릴 가능성 확대

전문가들 “편중된 수출 구조가 근본 문제
다변화 없으면 경기 하방압력 커질 것” 진단

내년 한국 수출이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 큰 변동 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발 고율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겹치면서 수출·둔화와 중간재 수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불황형 흑자’ 구조가 반복되며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안 요인을 우리나라 수출 구조의 취약성에서 찾고 있다. 전체 수출의 약 40%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집중된 구조적 편중 티에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9%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상반기 2.2% 성장을 기록한 뒤 하반기에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둔화·영향 속에서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 주요국 경기 부양 기조 등이 긍정 요인으로 꼽히지만, 세계 경제 전반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수입 역시 중간재 수요 축소로 인해 0.3% 감소가 예상되며, 내

년 무역수지는 약 675억 달러 흑자로 올해 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는 다소 다른 흐름이 제시됐다. KDI는 내수 회복세를 근거로 GDP 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1.8%로 예상하며 수출 증가율 역시 연간 1.3% 수준을 제시했다. 수입도 연간 1.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두 기관 모두 내년 상반기 수출·둔화 가능성에는 공통적으로 경고음을 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미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산업도 글로벌 수요·둔화와 정체 불확실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일부 인하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 비중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다.

철강은 내년부터 관세 적용이 확대되면서 대미 수출 급감이 예상되며, 일반기계·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품목 역시 철강·알루미늄·파생 규제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항 수출 또한 마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마대중 수출액은 각각 1278억 달러, 13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8%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 수출의 40% 가까이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수출 구조 개편’이꼽힌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통해 가치사슬 재정비, 전략 산업 중심 공급망 구축, 시장·품목 다양화 등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 연구실장은 “한국 수출은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며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수출시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아세안·인도·중동·남미·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가 수출 다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심의 교역 구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통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나래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강제로 개종·결혼한 파키스탄 기독교 여성... 가족 “압박과 협박의 결과였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에서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실종된 21세 기독교 여성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후, 가족들은 깊은 충격과 불안 속에 사건의 진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해당 여성인 모니카 제니퍼는 실종 열흘여 만에 법정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이웃 무슬림 남성과 자발적으로 결혼했다고 진술했으나, 가족들은 모든 과정이 강압과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라왈핀디(펜자브주)에 거주하는 그녀의 오빠 리자 아리프는 “동생이 강제로 남자였고 오랫동안 협박과 조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난 것”이라며 “제니퍼는 믿음이 깊은 기독교인이었다.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종교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아리프에 따르면, 무슬림 이웃 월리드 아흐마드가 그녀를 납치한 뒤 압박과 협박을 지속해 결국 개종·결혼을 강요했다고 한다. 제니퍼가 17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자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다음 날 다시 오라고 했고, 공식 실종 접수(FIR)는 인권단체들이 개입한 이후인 지난 23일에서야 이루어졌다. 그 사이 가해자는 제니퍼의 개종과 결혼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족은 밝혔다.

파키스탄 내 소수종교 인권활동가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고 자연이 파키스탄 사회 전반의 구조적 차별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리프는 동생이 법정에서 “자발적 개종”이라고 말한 것도 철저한 외압 때문이라며, “그 아이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흐마드 측 가족들은 오히려 제니퍼 가족에게 신성모독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결혼을 문제 삼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고령의 부모는 공포에 떨고 있지만, 가족은 끝까지 제니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파키스탄 기독교인(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가족은 지역 인권단체들과 함께 파키스탄 대법원이 구성한 소수자 보호위원회 ‘원맨 커미션’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의 실질 수사를 요구했다. 아리프는 제니퍼의 결혼 증서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신랑의 신분증 번호가 누락돼 있고, 결혼 등록관의 서명이 진짜인지도 조사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제니퍼 사건이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도 소녀들이 겪는 전형적 강제 결혼 강제 개종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한다. 종종 가난한 가정의 10대 소녀들이 갑자기 사라진 뒤, 며칠 후 스스로 개종·결혼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진술이 대부분 협박, 폭력, 세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강제개종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캐서린 삽나는 “소수종교 소녀가 한 번 ‘무슬림이 되었다’고 선언되면,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은 곧 배교자로 낙인찍히는 일”이라며, “배교는 파키스탄에서 매우 위험한 꼬리표이기 때문에 많은 소녀들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강제 결혼 속에 갇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인 변호사 리자르 알라 라카는 “납치범

이 주변에서 감시하거나 심리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녀가 자유롭게 발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많은 피해자들이 배교 혐의가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라흐르의 사회정의센터(CSI)가 발표한 ‘2021년 1월~2024년 12월 인권 관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강제 개종·결혼 사건은 최소 421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282명이 힌두 소녀, 137명이 기독교 소녀, 2명은 시크교 소녀였으며, 71%가 미성년자였다. 이 중 22%는 14세 미만, 49%는 14~18세였다. 성인은 13%에 불과했으며,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16%에 달했다. 사건은 신드주에서 69%, 펀자브주에서 30% 발생했다.

아리프는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다. 아이가 위험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만나는 것”이라며 “제니퍼는 가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두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이며,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2025 세계 감시 목록’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심각한 국가 8위로 선정됐다. 최승연 기자

자카르타, 도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도시로 부상했다

UN 보고서, 아시아 메가시티 중심의 인구 재편 흐름 드러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일본 도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올라섰다는 유엔(UN) 경제사회국(UNDESA)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25’ 보고서가 발표됐다. 자카르타의 인구는 4190만 명으로 집계돼 1위를 차지했으며, 오랜 기간 정상에 머물렀던 도쿄는 3340만 명으로 3위로 내려갔다.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급성장도

강조했다. 다카는 3660만 명 규모로 2위에 올랐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해수면 상승 때문에 고항을 떠난 주민이 몰리며 인구 증가가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메가시티(인구 1000만 명 이상)는 1975년 8곳에서 올해 33곳으로 늘었다. 이 중 19곳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으며,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9곳이 아시아 도시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자카르타, 다카, 도쿄, 뉴델리, 카이로, 상하이, 광저우, 마닐라, 콜카타, 서울 등이 포함됐다.

자카르타와 다카의 성장 배경으로는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이동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평가

됐다. 자카르타는 2050년 도시의 4분의 1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 중심지로서의 매력이 커 인구 유입과 높은 출생률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급격한 확장은 사회 문제도 키우고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생활비 부담과 도시 불평등이 심화되며 올해 초 저소득층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됐다.

UN은 조사에 적용한 새 도시 기준을 통해 국별 통계 차이를 줄였다고 했다. 새 기준은 ‘1㎢ 당 인구 밀도 1500명 이상’과 ‘총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 집적지를’를 도시로 규정한다. 최승연 기자

다음 위대한 부흥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리 맥글로틀린(사진)의 기고 글인 ‘위대한 부흥이 대형 집회에서 시작되지 않는 이유’(Why the next great revival won't start at big gatherings)를 25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제리 맥글로틀린은 현정 공화국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게스트를 대변하고 유대-기독교 윤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홍보 기관인 스페셜 게스트(Special Guest)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요즘 부흥(revival)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아주사 거리(Azusa Street) 부흥, 웨일즈(Welsh) 부흥, 그리고 18세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대각성(Great Awakening)을 떠올린다. 좀 더 최근에는, 사람들이 며칠 또는 몇 주씩 머물렀던 에즈베리(Ashbury) 대학 부흥이나, 수많은 신자들이 더 깊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한 토론토 블레싱(Toronto Blessing)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바로 ‘더 큰 영광(greater glory)이다. 이는 성령의 가장 큰 부으심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예수와 함께 걸었던 사도들이 경험한 기적들보다 더 큰 역사가 앞에 놓여 있다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분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다락방의 경험’을 통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

옛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함을 갈망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마치 만나에 친진 옛 이스라엘처럼 말이다.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외쳤고,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보내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늘의 완전한 양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눈앞에 두고도, 일시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이 영적 광경에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적 비报复과 다를 때, 우리는 “주님, 당신의 뜻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히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라고 덧붙인다. 즉, “제가 진짜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라는 의미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분의 뜻은 완전하다. 반면 성경은 말한다: “사람의 마음

은 만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나…”(예레미야 17:9)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세요”라는 말을 도피구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으로 바꾸자: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만, 저는 제 마음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 마음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부분적 편안함이 아니라 완전한 뜻을 구하자. “하나님, 제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소.”(사편 51:10)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뜻을 원하는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원하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고—바로 거기서 부흥이 시작된다.

◆“한 사람의 부흥”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필자는 다음 위대한 부흥은 거대한 스타디움 집회나 바이럴 예배 영상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부흥(revival of one)”이다. 한 사람의 부흥이라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결단한 신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그 뜻 자체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여운 예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편안함을 시험하는 결혼으로 이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특수 욕구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라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속으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길 바라고 있을까? 이 지점이 바로 부흥의 갈림길이다.

◆부흥의 길

해답은 단순하지만 깊다.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신뢰할 때만 그분께 완전히 순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반영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즉, 감정이 아니라, 정렬(alignment)이다.

◆연합된 부흥

만약 우리가 각각 “한 사람의 부흥”을 경험한다면 어떤가? 전 세계 신자들 사이에 어떤 영적 시너지(synergy)가 일어날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 안에서 걷고, 성령의 흐름 속에서 서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한복음 17장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자리 말이다. 디카울 부흥은 우리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부흥이 건물이나 운동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하자. 우리 개인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성령, 한 사명, 한 사랑 안에서 연합되자.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의 부흥’이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재권 예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감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동 저율을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제기자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코 선박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신학적 단상



박현숙 목사
프린스턴 미션,
인터넷 선교 사역자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태21:1)

이는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인정치 않으므로, 성경 전체를 초자일관 통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 심령을 울리지 못하는 고로, 양식 사적 비평을 통한 구전 과정이나 가설에 의존해 구원사적 의미를 인위적으로 도출코자 하는, 자유주의적 신학이 가져온 무모하고 위태한 논센스이다.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 그 자체로서 '우주적인 차원'이니 하며, 중심궤도를 벗어난 원근적인 구원관으로 성급하게 진입하기 전에, 먼저 피조세계에서 구원의 직접적인 제1의 대상은 인간이며, 인간의 타락때문에 인간에게 종속된 온 피조세계(창1:28)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게 되었다는 사실을(롬8:22)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오죽하면 온 피조물이 신음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을 간절히 고대하겠는가?(롬8:18) 성도 개인으로서의 회복과 구원이 곧 피조물과 우주질서의 회복과 구원으로 이어짐을 깨달아서 우리는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자신과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주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한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만남의 교제를 등한히 한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주로 하나님만을 주로 거명하면서 '포괄적 구원'에만 전념한다면 우리는 부지중에 '포괄적 신성관'에 문을 열게 되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주의나 만물구원론인 유니버설리즘에 경도될지도 모른다. 이는 결국 종교다원주의의 노선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신앙관이 견고하지 않은 신학은 위

의한 현상이나 추상적인 우주적 사색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보다 세상의 정의구현을 위한 수평적인 관계를 우선순위에 둘 때, 본말이 전도된 좌파적 해방신학류가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4)고 말씀하는 동시에, "모든 피조물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길 원한다"(롬8:20-21)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괄적인 구원'이니

태한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누룩처럼 교계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잠재력을

안고 있음을 늘 명심하자.

인과율과 기계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은 신학의 자유일지언정, 여기에 '하나님의 자유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딘지 어색하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Absolute sovereignty)'에 의한 것이기에, 의지적 '용인이나 '거부란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에서도 선행과 공로에 따라 상벌을 정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개념이 부재한 '기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총"은 아이히로트의 계약신학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에 의해 계시된 것이다.

즉 '언약'은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며, 믿음과 순종은 '구원의 언약'을 전제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은총'이란, 믿음과 순종없이도 거저 주어지는 구원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의해 확증된(롬5:8),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언약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총"이 단순히 구원의 자동 공식처럼 거론되고 이론화 될까 사뭇 염려스럽다. 시편을 읽어보라. 디윗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과 회개의 눈물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총"을 체득했는지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주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빌3:10)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개념적으로는, 믿음과 순종을 전제하는 구원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믿음과 순종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이다.

'믿음과 열매맺는 회개와 기도'는 신자의 성화 과정 동안 자속됨으로써 구원의 조건과 이유를 이뤄나가는 '구원의 현재적 경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신자는 자신 안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 친히 탄원하시는 성령에 의해 자신의 심령이 통족되므로 회개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롬8:26-27). '믿음과 회개'는 예수님의 복음을 사역의 시작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기 위한 첫 메시지였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4:17)

그러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현실에 불과하다고 누가 표현을 한다면,

이는 내용상 앞뒤 문맥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부조리한 문장으로 들릴 것이다. '수동적' 표현 만큼 '불과하다'란 표현도

'단지와 같이 불안하고 근심스런 암시를 풍긴다고 느껴지는 건 필자만의 기우일까...?

일례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회생에 의해 극적인 구조로 살아난 사람이, 그 소방관에 대한 감격스런 감사로 충만하여, 자기도 같은 제2의 소방관의 인생

을 살아감으로써 자기가 진 생명의 빛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남들을 구조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찌 '수동적인 반응'이니 그런 현실에 불과하다'니란 표현을 감히 쓸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회복과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 우러나는 것이어서 결코 수동적인 반응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의 말씀대로 심령에서 생수(성령)의 강이 흘러 나오는 은혜이다(요7:38).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시51:12)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7:38-39)

신자는 교황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파견하신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Christ's ambassadors)'이다(고후5:20).

크리스챤이 믿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주이신 성자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부디 한국신학계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요16:13), 성경의 내용에 근거한 언어 사용과 성경의 본질에 근거한 신학적 통찰과 성경의 메시지에 근거한 해석학적 접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한 여리가지 삶의 필요와 그것을 향한 요구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오늘만큼은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에서는 "회사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기대가 쌓일 때 감사는 어느새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이러한 기대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로 굳어져, 하나님 보다 더 위에 있고, 더 크게 보이면 마음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차오르게 되고, 은혜는 보이지 않



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정욕(욕망)'이라고 부르며 갈등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 된다고 말합니다. 욕망이 커지면 받은 은

혜는 점점 작아 보이고, 은혜가 작아 보이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멀라갈 것입니다.

마음의 렌즈가 욕망의 색으로 물들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들을 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외에 모두 허용된 그 많은 나무의 과실들보다,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하나님에 감사의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억지로 꺾으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크고 깊고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적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인정이나 편안함, 나의 뜻

이 더 중요해졌던 자리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중심을 차지할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잊고 감사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감사란 결국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받았다"는 복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이며, 상황보다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조용히 피어오르는 열매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약속된 더 큰 은혜가 스며들어 마음의 절망이 잡잡해지고,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차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진 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에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장애인은 연민의 대상이지 동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

J. D. Kim 교수
덴버 신학교 박사과정
부디렉터 조직신학 교수



이 글은 교회 안에 자주 나타나는 장애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매주 한 가지 오해를 살펴보며 성경과 신학과 목회적 관점에서 성찰하여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비장애인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장애인은 죄에 대한 징벌이다”라는 오해를 다루었습니다.

◆오해 2: 장애인은 연민의 대상이지 동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의 삶 속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성경적 관점보다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오해가 장애인을 주로 연민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연민은 선한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연민이 관계의 기본 구조를 이루게 되면 장애인은 함께 신앙을 나누는 동역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때 장애인은 교회와 함께 고민하고, 사역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며,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는 동역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행을 통해 보호

받는 존재로만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장애 아동과 장애 성인을 위한 특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분명 귀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그들을 주일예배, 공동 기도 모임, 신앙 교육, 리더십 훈련과 같은 교회의 신앙 형성의 중심 흐름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했고, 여러 도움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지만, 장애인 성도들은 교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질문과 통찰은 교회의 신학과 사역을 형성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사역은 “누군가를 돋는 부서”로 머물고, 장애인 성도는 교회 구조와 의사결정의 주변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문제는 개인의 태도 이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교회의 기본 구조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동역자”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연민이 중심이 될 때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기울어집니다. 돋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정된 위치를 갖게 되고, 그 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집니다. 돋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와 선택, 신학적 통찰과 삶의 해

석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합니다. 장애인은 사랑 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교회의 중요한 논의와 책임에서 비켜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연민이 깊어질수록, 의도와 달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영적 주체성이 약해지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조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깊은 궁휼을 가지셨지만, 그 궁휼은 늘 관계와 친교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멀리서 바라보며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곁에 앉아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공동체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불러들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연민은 상대를 낮은 위치에 고정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인격으로 마주 보게 하는 관계의 통로가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속적 연민은 보이지 않는 거리를 남기지만, 예수님이 연민은 그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하나의 몸으로 묶는 친교를 형성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자비의 수혜자로 만 여기는 태도는 결국 교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각 자체가 서로 연결된 한 몸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약한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장애인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부속적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없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되는 필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동역의 깊은 신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멀리서 바라보며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피곤함과 아픔과 외로움의 경험을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성육신은 연민의 거리에서 동역의 자리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하신 예수께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셨다는 사실은, 교회가 서로를 향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위에서 돋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서로를 동등한 형제로, 자제로, 동역자로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비전 안에서 장애인은 교회의 사역이 향해야 할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각 성도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십니다. 장애를 가진 성도 가운데에는 깊이 있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이도 있고, 관계와 위로의 은사를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을 불드는 이도 있으며, 고난을 통과하며 얻은 지혜로 공동체의 신학적 분별을 돋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장애인을 돋는 대상으로만 이해할 때, 교회는 단지 사랑을 베풀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은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일을 넘어서, 실제 구조와 기대치를 접검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 주는 사역만 계획하고 있지 않은지, 장애인 성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의와 나눔의 자리에 장애인 성도의 자리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 장애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교회의 방향에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는지도 접검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연민은 감정의 차원에 머물 수 있지만, 동역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의 구조입니다. 연민은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 위에 서도록 만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역은 서로를 같은 자리에서 세워 주며 상호성을 회복합니다. 연민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동역은 서로 책임을 나누며 함께 짐을 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연민은 순간적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동역은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구조를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함께 동역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 주는 증언이 됩니다. 장애인이 자비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증인과 대회자 이자 사역의 동반자로 서게 될 때, 교회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한국 교회 곳곳에서 세워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자리가기를 기도합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창세기 11:1~9)

이선규 목사
대림다문화센터 대표
연합교회 담임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한 채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해진 결과, 결국 하나님에 의해 그 계획이 무너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왜 탑을 쌓으려 했는지, 그리고 바벨탑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거대한 탑이 하나님에 의해 좌절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은 분명한 교만이었습니다. 또한 들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불러온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인간들은 견고한 벽돌을 만들어 하늘에 닿을 정도의 도시와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경건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헛된 야심만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는 모습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욕망과 야심의 발로였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흩어져 탑 쌓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

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며 삶은 더욱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이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명이 생성되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21세기의 문명이라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세웠지만, 결국 그것은 하구

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인본주의 문명은 그 속에 이미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언젠가 그것이 자라 인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 약 300년이 지난 시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다시 홍수가 날 것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한 벽돌을 굽고 높은 탑을 쌓으려 한 것은 과학과 인간의 힘을 의지한 행위였으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말은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는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동기는 결국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최초로 뱀이 인간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듯,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 대적하라고 속삭이며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는 자비의 표현입니다. 사람을 친구나 섭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용하거나 지배하려

하는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인간은 더욱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치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치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고독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서로 물치려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을 만들고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국제기구가 등장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모든 모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지 못한 바벨탑의 건설을 막

으셨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탑을 쌓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셨고, 동시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의 수고는 헛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벨탑 안에서는 자신의 기술과 능력만 보일 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바벨탑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공과 우주의 광대함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바벨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섰더니.”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언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지 못한 바벨탑의 건설을 막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성경으로 돌아가 개교회를 회복하자

권태진 목사
(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는 문맹과 가난, 전쟁, 혼란한 사회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며 세계가 주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교회는 국민의 영적인 피난처였고, 교육·의료·구제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 이 시기 기도원 운동, 부흥회, 전도 집회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 1970~80년대는 한국교회 성장의 전성기였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뤘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이 한국에서 등장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구국기도는 한국 교회 영성의 상장이었으며,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교회는 국내 성장에 머물지 않았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했고, 단기간에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가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남긴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었다. 김남식 박사는 '네비우스 선교정

책의 수용과 성경 중심 목회를 한국교회장로교) 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교회는 외부 선교사가 만든 종속적 구조가 아니라, 말씀 위에 자립(自立)·자전(自傳)·자치(自治)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교회는 외부 재정이 아닌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졌고, 신앙은 성도의 삶을 통해 전파되었으며, 모든 결정은 조작이나 세력이 아닌 말씀의 권위 아래 이루어졌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역동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시킨 힘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은 안타까움을 안겨 준다. 말씀보다 규정이 앞서고, 소명보다 행정이 우선하며, 전도와 목회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논의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개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교단법과 정치 논리가 복음의 흐름을 가로막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다시 분명히 서가야 한다. 정부나 교단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며 한국교회의 주체는 개교회이다. 정교분리의 원칙 아래 국가는 신앙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교회 또한 정치권력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교회를 보호하여 목회자가 소신과 소명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열정으로 전도하고 섬기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과거 장로교회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일제강점기와 혼돈의 때를 잘 극복한 것처럼

지금은 개교회의 존립과 부흥이 중요한 때이다. 교회가 교단의 정치나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신앙, 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정년이나 은퇴 제도, 종회, 노회의 교권에서 자유하고 개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더 큰 부흥을 할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말씀 전파와 영혼 구원에 유익하다면 세속의 여론과 교권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목회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교회를 행정부와 세속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념 갈등과 체제 전쟁의 현실을 성령으로 극복하고 부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자립, 자전, 자치의 원칙을 되살려 개교회가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기를 소원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7-8)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일으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자. 다시 기도의 영성과 성경적 교회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한국 교회 역사 속 또 한 번의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여론 조작, 좌시해선 안 되는 이유

중국인들이 한국인인척 국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X(옛 트위터) 가 댓글 등 의 국적 표시제를 도입한 결과 중국인들이 계정에 접속한 후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거다.

X는 전 세계에서 약 4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미국의 포털 서비스이다. 그런 계정에 접속한 위치와 국적 이 공개되자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진실, 즉 중국의 전문적인 댓글부대 활동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X에서 대표적인 계정을 찾아보니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에 7년간 무려 6만 2천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7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6~27건의 글을 올린 거다. 이걸 누가 보통 일반인이 한 거라 믿겠나?

놀라운 건 이 글들이 모두 한국인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위장됐다는 점이다. 일반인이라면 중국인이 중국에서 계정에 접속해 글을 올리면서 굳이 한국인인척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글들이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반대로 야당인 국민의 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라는 점에서 중국 댓글부대의 목적에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게 X 뿐이란 거다. X 가 국적 표시제로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진실 조차 영영 묻힐 수 있었다.

중국 댓글부대의 실체가 X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제 관심은 국내 포털에 쏠리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국적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 실제가 드러낸 게 없지만 여기에서 중국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정치 관련 댓글 또한 X에서 드러난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X의 이용자 접속 위치 공개로 지난 수년간 국내 정치상황에 중국의 댓글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 힘에선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 계정의 여론 조작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며 "보이스피싱 대처를 위해 국제진화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국내에서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국인을 가장해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를 극렬 지지하면서 많은 계정이 이용자들의 접속지가 '중국'이었다. 나정 간섭이자 선거 관여"라며 "형사 고발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그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라 이번 X 계정 국적 공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社說

감사의 합창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솔로의 음악도 아름답지만 진정한 매력은 합창입니다.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고 곡에 충실하고 지휘에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웅장하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감사의 계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풍성한 감사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장이 시편 136편입니다. 절기에 모인 사람들과 예배를 인도하는 선장자가 하나 되어 믿음 공동체에게 언약을 선포하고 확인하며 마음에 새기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체의 장입니다.

니다. 시편 136편은 앞구절 감사할 이유를 선포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치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예배 참석자들은 후련,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5).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과 그 성품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하여 찬양하며 새깁니다. 이것이 '감사 합창'입니다.

세상은 감사가 식어진 시대입니다. 감사할 대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할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식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 100:4). 감사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혼자의 감사도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주님의 사랑받은 성도들의 감사 합창은 하나님의 입을 벌어지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감사는 지금 모든 상황에서 그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염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비결입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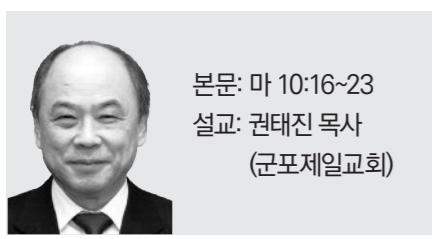
듣는 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듣는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끝까지 견디라



본문: 마 10:16-23
설교: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믿어라, 싸워라, 이겨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한 해 동안 세속의 유혹을 이기고 잘 싸워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요8:23)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진리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진리로 세워졌고, 진리로 유지되고, 진리로 회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지식과 가치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1.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자해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

라”(마10:16)

이리는 양을 해치는 사나운 존재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요10:12b)

변장술에 능하고, 지형과 문화를 이용하고, 곁과 속이 반대인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라”(마7:15)

이리는 흠하고 괴괴시키는 존재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10:27)

주인에게 속해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

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

시는 양이로다”(사10:03)

양은 희생과 제물의 상징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

양은 아리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보호가 있으므로 절대로 이리의 밤이 되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뱀 같이 자해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행동이 깨끗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은혜를 알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뱀 같이 자해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

돌기의 형체같이 임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날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3:21-22)

뱀 같은 지혜만 있고 순수성이 없으면 간교해지고 교만하여 세상 사람과 같고, 반대로 순수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이응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로 부터 나오며 순수함은 성령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마10:17)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두고 박해하고 하는 것은 이리같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리”(마10:18)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라”(행5:40)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사도 뿐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권력자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이리에 속했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고 환경과 세상을 이겨가야 합니다.

2.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마10:19)

성령의 사람은 찰나의 순간에도 지혜를 발휘해 좋은 말과 행동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한순간에 실수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10:20)

성령은 창조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태시킨 영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를 알고 대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것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모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말과 환경으로, 문화와 삶으로, 안내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5:19-22)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친움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3.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마10:21)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는 가족에 게까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통해 형제가 된 신령한 가족들과 생사를 같이 합니다.

교회사 속에 ‘선다 상’도 부모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선다 상은 1889년 인도 펀자브 지역의 시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족이 믿는 시크교에 있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세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크리스천이 되자 16살에 추방하고 음식에 독약을 넣어 먹여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부모, 형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상급과 누림이 있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거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하지만,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전도, 혼신하다가 아려움을 당할 때는 믿고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마10:23)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리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고 자유를 자킬 수 있는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00대 기업 86.7%, 인사업무에 AI 쓴다… 재직자 42% “취업 준비 때 AI 써 봐”

고용노동부,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재직자 설문조사

국내 상위 500대 기업들의 86.7%가 인공지능(AI)을 채용 등 인사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정한 이용을 위해 연내 ‘채용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달 28일 AI 활용현황에 대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차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396개사 중 인사업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비공식 포함 86.7%였다.

향후 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 확대 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295개사(74.5%)로 나타났다. 주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검사(67.5%)’, ‘지원서류 검토(63.4%)’, ‘채용 절차 관리(55.6%)’ 등에 AI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34.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채용 전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31.5%)’,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14.2%)’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반면 도입 확대 계획이 없는 101개사(25.5%)는 ‘AI 도구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36.6%)’라고 답했다. 또 ‘최종 결정에는 사람이 개입해야 하므로 중복적인 업무가 돼서(19.8%)’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청년 재직자의 경우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년은 42.3%였다. 주로 자기소개서에서 등 작성(77.2%)에 가장 많이 활용했다. 면접준비나 기업 정보 탐색에 사용했다는 응답도 각각 36.4%, 31.0%였다. AI 도구를 활용한 이유는 ‘취업준비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8.7%)’, ‘면접 시뮬레이션 등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22.0%)’ 등이었는데, 응답자의 86.6%가 AI 활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청년 재직자 61.8%는 업무 수행 시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IT(87.7%) 및 마케팅·홍보(87.0%) 직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연구개발(79.5%), 영업·영업관리(68.0%), 경영

자원(58.6%) 순이었다.

이들이 AI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는 ‘자료조사 및 아이디어 도출(63.6%)’, ‘문서 작성(58.1%)’, ‘데이터 분석 및 수치 계산(35.4%)’ 등이었다.

청년 재직자들은 AI 도구의 사용이 ‘업무 처리 속도 향상(56.2%)’과 ‘결과물의 질 향상(24.5%)’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63.8%가 기업이 AI 채용 전형을 운영하는 데 찬성했고, 23.7%는 취업 과정 중 AI 채용 전형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AI 판단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26.9%)’, ‘AI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23.1%)’, ‘자기 표현의 왜곡에 대한 불안감(18.4%)’ 등을 걱정했다. 구직

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47.1%)’, ‘AI 평가의 편향성 검증(42.3%)’, ‘AI 도구로 평가되는 평가요소에 대한 사전고지(4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시 윤리 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채용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AI 채용과정에서의 사전고지 및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채용절차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42개 고용센터에 AI 면접실을 설치해 청년들이 언제든지 AI 면접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AI 기초 이해’부터 ‘직무활용’, ‘개발·역량’까지 단계별·수준별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다온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경!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록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 자격
신학부	(주/야/토요반) 8학기	• 세례를 받은자 • 남녀 상관없이 사랑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증하는 타 신학학을 졸업하거나 • 중퇴한 자는 학업 가능.
신대원	(주/야/토요반) 4학기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 본교 3학년에 편입.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록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교는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0장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NCS평생교육원)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 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33)

「바른예수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절대 이치」의 신분으로 청세 전부터 이미 계셨고, 청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당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는 지나가는 「남을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면서 스스로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가 이땅에 온 것은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였지요. 예수가 전 인류를 섬기려 았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예수를 섬기는 일이고, 동시에 몸의 자체인 「교인들」을 섬기는 일인가?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요, 또한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있어도 아니 되고, 교인들의 상전 노릇을 해도 아니 됩니다. 스스로 교인들의 상전인 자들은, 예수는 「작꾼」이라고 칭했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섬자는 강도나 절도라고 언명했습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는, 위선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을 지칭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들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고, 교회와 교인들을 이용하여 세속적 출세를 마냥 즐기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이라고 떠벌입니다.

그리면서 작은교회나 가난한 목회자들, 못사는 교인들, 영리한 자들, 실망한 거듭하는 자들, 소외당한 자들, 장애인들 등에 대해서는 「저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헛된 궤변을 내뱉기도 합니다. 과거 타개한 서울의 한 종종교 목사는 「동남아 해변에서 쓰나미로 20만 명 이상이 죽은 건 저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설교했고, 「십자가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다음 주에 계속)

광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 성원계좌: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바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꽤 적은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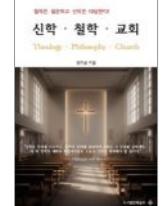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역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대답’… 『신학·철학·교회』 출간

양기성 박사, 칼럼 70여 편 묶어 펴내



한국ウェ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웨협) 대표 회장이자 서울신학대학교 특임교수인 양기성 박사가 기독교 언론에 1년 넘게 연재해 온 칼럼 70여 편을 묶어 『신학·철학·교회』(도서출판 웨슬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오는 12월 15일 한국 웨슬리운동 22주년 기념 송년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양 박사는 책의 '머리글'에서 유신진화론과 자유주의신학이 한국교회 신학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사상들이 단순한 학문적 의견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과 정통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라고 규정한다. 그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 신앙을 상대화하는 흐름과, 인간중심 철학 속에서 성경 권위가 희미해지는 현상을 언급하며, 이 책이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학적 고백이라고 밝힌다.

칼럼들은 신학·철학·교회라는 세 영역을 축으로, 오늘의 교

회가 왜 신학적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복음주의적 답변을 제시한다. 양 박사는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대답한다”는 원리를 따라, 시대의 사상적 혼란을 통과하는 길은 결국 성경적 신학의 회복에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루터가 강조한 ‘오직 성자 예수님’, 칼빈의 ‘오직 성부 하나님’, 웨슬리의 ‘오직 성령님’ 중심의 교회를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에 실린 칼럼들은 유신진화론과 복음주의 신학의 대조, 전통적 신학과 파괴적 철학에 대한 비판, 웨슬리 신학의 현대적 의미, 교회의 사회적 책임, 지도자의 품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학문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목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신앙적 성장을 담아, 신학도뿐 아니라 평신도도 읽을 수 있는 에세이 형식으로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양기성 박사는 1970년 유성성결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한 후, 1974년 조종남 박사의 강의를 통해 존 웨슬리를 영적 물모델로 삼았다. 이후 50여 년 동안 웨슬리 운동가, 목회자, 교육자, 부흥사, 복지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다. 청주우리교회를 40

년간 목회하며 세 차례 성전을 건축했고, 여러 대학에서 20년 넘게 후학을 양성했으며, 기도원과 아동복지시설 사업에도 힘을 쏟아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서울신학대학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책에는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 협성대학교 서명수 총장, 목원대학교 이희학 총장,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 등 주요 신학대학 총장들의 추천사가 실렸다. 이들은 공동적으로 『신학·철학·교회』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신학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책”이라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한다.

양 박사는 서문에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학적 성찰과 교회의 간신을 위한 새로운 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1세기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만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고백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이 한국교회가 반드시 불들이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김진영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내 뒷이로소이다’는 항상 상대편의 입장 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배신을 당해도 나를 배신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건 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뒷이로소이다’가 됩니다. 매사 ‘내 뒷이로소이다’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신비한 능력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보복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배를 타고 항해 하기에 하나님께 다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보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기에 기회가 와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일을 행하려면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김양재 ‘위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는 매일만나 365

신간 ‘하나님의 손길’



코로나19 팬데믹 속 흩어진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시리즈가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했다. 새롭게 출간된 〈 하나님의 손길〉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365일 동안 깊이 묵상하도록 돋는 영성 안내서다.

김병삼 목사는 만나교회가 200여 년간 ‘변화산 특별 기도회’에서 나누어 온 말씀 가운데 신앙의 중요한 여정 12가지를 선

택해 이 책에 담았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도록 이끈다.

이 책은 매주 6일간의 묵상과 하루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말씀 묵상’: 주제별 성경본문과 묵상 글, 오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질문을 제공하여 독자가 신앙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도록 돋는다. 2부 ‘신앙 에세이’: 저자의 목회 여정과 일상에서 발견한 은혜의 순간들을 기록한 글로, 독자 스스로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다. 특히 유튜브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채널과 연동되어, 책과 함께 매일 묵상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예배가 멈추고 공동체가 흩어졌던 시대를 지나, 많은 성도들이 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하

나님의 손길〉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답한다: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는 것이다. 변화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오늘을 견딜 수 있다.”

메마른 마음, 흔들리는 믿음, 방향을 잃은 영혼을 위해 이 책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조용히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새 힘을 전해준다.

이 책은 ▲매일 말씀 묵상으로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싶은 성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싶은 이들 ▲목회적으로 성도들의 일상 신앙을 돋고 싶은 목회자 ▲영상 묵상과 함께 꾸준히 신앙의 루틴을 만들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된다.

최승연 기자

승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두 권의 도서 ‘세종도서 지원 사업’ 선정

‘냉전·종교·인권’과 ‘헝가리 현대사’ 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선정… HK+ 사업 연구 성과 반영

승실대학교(총장 이윤재)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박삼열)은 자랑스러운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두 권의 도서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도서 중 하나인 「냉전·종교·인권, 1960~1980년대」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윤정란 교수가 주요 필자로 참여했다. 이 도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냉전시대 한국의 문화 변동을 다루며, 특히 경제 성장과 민족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저항운동을 냉전 문화와 종교적 저항 측면에서 분석한다. 윤 교수는 책의 제1부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냉전적 국제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제2부에선 1973년 베트남 전쟁 종결 이후 개신교와 가톨릭이 다른 인권 문제를 설명했다.

또 다른 도서인 「뒤틀린 운명의 메타포시스: 헝가리 현대사의 격동기는 김지영 교수가 집필한 단독 저서로, 역사자리 관광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



©승실대

가리와 루마니아 간의 트란실바니아 영토 분쟁을 중심으로 유럽 강대국들의 외교 전략과 정책 결정을 분석한다. 김 교수는 헝가리 현대사가 겪은 격동적인 변곡점을 다루며, 당시의 중요한 판단 착오가 헝가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한다.

이번에 선정된 두 도서는 승실대학교 HK+(인문한국플러스) 사업의 2단계 아젠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었으며, 연구원은 3년간의 연구를 통해 근대 전환기 한국의 문화 변동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또한 선정된 도서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도서관 및 인문시설, 해외문화원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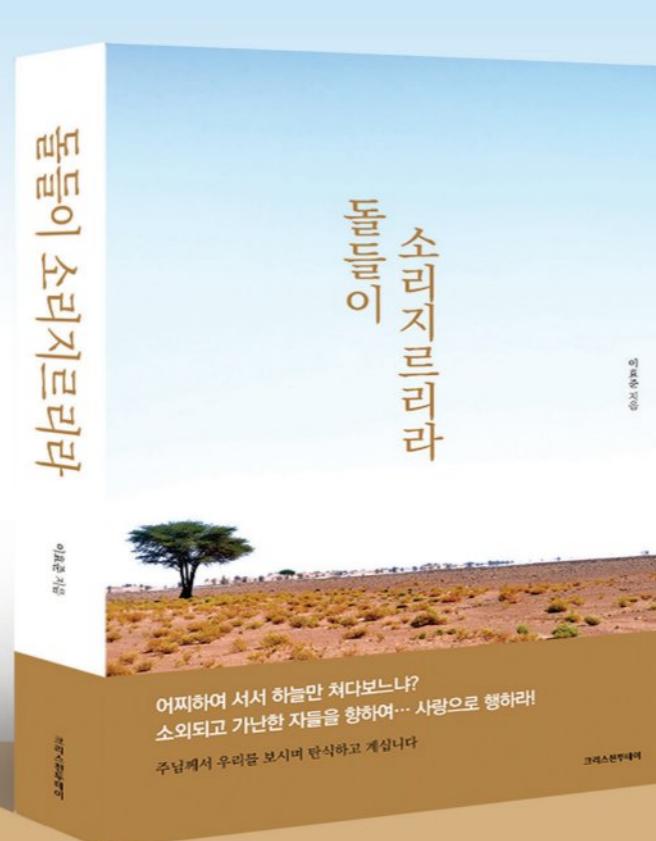
박삼열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장은 “우수 학술도서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본 연구원의 학술연구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자동 기자

지난 2천 년 동안 기독교의 상징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뜻하는 십자가’가 되었다. 그 죽음은 비극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구유에 누인 작은 아기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가족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 잡이 필요한 난민들, 자유가 필요한 노예들, 먹이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 정의가 필요한 억압 받는 이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초대이다. 부르심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필요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며,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한다.

데이비드 플랫 ‘예수님 책’

크리스천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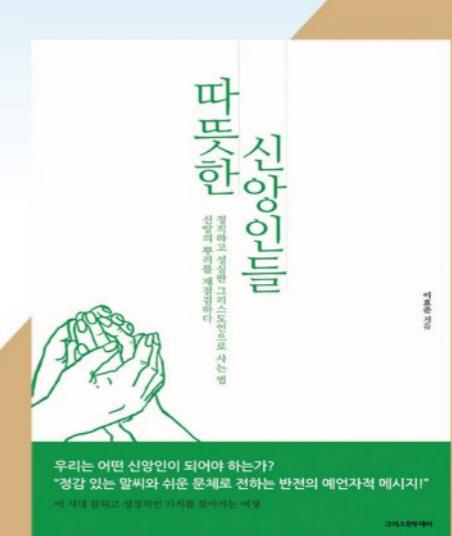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군가 소중하게 여겨지면 그 사람 때 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소중해 보입니다. 따라서 침성도라면 누구나 다 주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주 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이 소 중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구세주 때문에 그분이 입고 계신 의복마 지 향기로워 그 옷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듯이 “왕의 모든 옷은 물 약과 침향과 육계(肉桂)의 향기가 있으

며”(시 45:8)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발이 밟은 곳 중 어느 한 곳도, 그 복된 입술이 발한 말 쓰 중 어느 한 말씀도, 그의 사랑스러운 말씀이 계시한 생각 중 어느 한 생각도, 그 어느 한 가지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가 교회의 남편이라 불리든, 교회의 신랑이라 불리든, 교회의 친구라 불리든, 태조부터 죽음 당한 어린양으로 불리든, 아니면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든, 실로나 임마누엘 또는 기묘자

나 전능하신 모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아무튼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은 다 끌어 방울저 떨어지는 벌집처럼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귀에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 이것은 천국에 있는 거문고들을 감동시켜 아름다운 소리를 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는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어떤 이름보다 더 매력적이고 소중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찬송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 많은 곡들이 바로 이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이름으로 끝맺

지 않는 찬송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이름은 또 모든 기쁨의 종체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천국의 벨을 울리게 하는 음악입니다. 예수라는 한마디 속에 음악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물방울처럼 짧은 이름이지만 이 이름 하나를 이해하는데는 온 대양이 필요합니다. 두 글자로 이루어진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는 비할 데 없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오라토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글자 속에는 영원한 할렐루야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은 제 귀에 음악 소리와도 같습니다.”

찰스 스펠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바이블지식IN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죽음을 분리로 묘사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으로부터의 영혼의 분리이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혼의 분리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a.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온 세상이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창세기 2:17에서, 주님은 아담에게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 죽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는 즉각적인 영적 죽음을 경험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 [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8). 이후에, 아담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5:5).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또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50). 차이점은 아담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 죽기를 선택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9). 그 후, 예수님이 사흘째에 부활하신으로써 죽음과 죄를 뛰어넘는 그 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 요한계시록 1:18). 그리스도 덕분에, 사망은 패배한 적이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전서 15:55, 히브리 13:14).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막을 내리게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구원을 받은 자는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8, 베일보서 1:23).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진실되어 크리스천의 육체적인 죽음은 “삶” (고린도전서 15:51, 데살로니가전서 5:10)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을]” (요한계시록 21:4) 때를 기대합니다.

갓퀘스천스 제공

날새를 품어 하소서 스콜라 철학 (6)

아비뇽

교황 보니파시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은 교권과 왕권을 서로 충돌하려다가 큰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때 프랑스가 강해져서 교황이 잠시 불잡힌 일이 있습니다. 교황이 죽은 후 프랑스 초기경들은 프랑스인 교황 클레멘스 5세 (1305년-1314년)를 세워, 교황청을 아비뇽 (Avignon)으로 옮겼습니다. 법왕으로 선출된 클레멘스는 로마로 갈 생각은 않고 고향에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국왕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클레멘스에 의해 결국 고대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에 비유하여 ‘교황청의 바벨론 유수’(1304년-1377년)라고 부르는 기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클레멘스 5세 이후에도 여러 명의 꼭두각시 프랑스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클레멘스의 뒤를 이은 6대에 걸친 법왕은 모두 프랑스 출신으로서 로마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뇽이 법왕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던 아비뇽은 이후로 인구 8만의 번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방대한 수의 성직자 관료 가구가 만들어지고, 극도로 사치스러운 교황청이 세워졌습니다. 아비뇽의 법왕들이 솜씨를 보이기 위해 재정면과 행정면이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의 지도력은 빈약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어 가서, 프랑스 초기경들은 다시 이탈리아인 교황을 세우고, 그를 우르반(Urban) 6세라 하였습니다(1378년). 그러나 우르반 6세는 자기를 뽑아 준 프랑스 초기경들을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전히 그리스도의 단일성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 초기경들은 다시 아비뇽으로 돌아가서 같은 해에 클레멘스 7세를 세웠습니다. 이래서 교황청이 로마와 아비뇽에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회의들

회해주의자들

교회 상황과 대분열 때문에 전체 종교 회의가 공개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 법학자들과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에 이 목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회해주의자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특히 교회의 권위가 전 신도 조직체 또는 모임에 주어지며 이 권위는 공동 의회에 대해서 표현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중으로서의 교회와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것을 행사하는 교황 안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교회 사이에 구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는 신앙인 전체 조직체 속에 귀속되며 만약에 교황에게 권위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으며 남용 시 철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교회의 위기 때문에 교황의 권한 없이 초기경 또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종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종교 회의가 교황의 그 것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회중의 본래 권한의 집행권을 찾으려고 할 때 전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마리아기에 교회의 권위는 그에게서 나오고 교회의 신비한 몸의 단일성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단일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단일성을 보호할 수 있고 전체 종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파리 대학장의 제자인 진 데 게르송(Jean de Gerson, 1363년-1429년)은 이 같은 교회의 타락을 회복하는 길은 기독교국 간의 대회의 를 열고 그 회의의 권력을 맡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교황의 독재 정치 대신 일종의 의회 정치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격의 회의는 다음 3차례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사 회의(1409년)

피사(Pisa) 회의의 목적은 대분열을 해결하고, 교회 내부를 개혁하며, 이단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종교 회의로서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있던 두 교황을 폐위시키고 새 교황을 세웠으나, 폐위된 두 사람의 교황이 각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결국 새 사람의 자칭 교황이 된 것입니다.

콘스탄츠 회의(1414년)

콘스탄츠(Constance) 회의는 종교적 대분열의 공식적 종식을 가져온 회의입니다. 세 사람의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마르틴(Martin) 5세를 유일한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교회 일치의 효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후스(John Huss),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등을 교회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처형시켰습니다. 교회의 내부를 개혁하는 일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02:26 NIV
They will perish, but you remain;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Like clothing you will change them and they will be discarded.

- perish: 사라지다, 소멸(消滅)되다
- remain: (없어지지 않고) 남다
- wear out: 낡아서 해지다
- garment: 의복(衣服), 옷
- clothing: (특정한 종류의) 옷
※ clothing은 '뗄 수 없는 명사입니다.'
- discard: (불필요한 것을) 버리다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웃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꿔려니와
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승 칼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116)



"너희는 세상의 빛이
라 산 위에 있는 동네
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요 사람이 등불을 켜
서 말 아래에 두지 아
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니 이므로 집 안 모
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
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정체성
이며 가치다. 빛의 본래적 역할은 어두움
을 밝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
음을 의미한다. 빛은 어두움을 전제로 존

재하기 때문이다.

빛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빛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빛은 천지창조의 본질이기도 하다. 빛 창조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질서가 생겼다. 그런 질서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빛은 인간보다 우선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 유지에 빠질 수 없는 절대적 요소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그 빛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빛에 대한 반사경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께서 비주어 주시는 빛의 반사경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우

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본래의 창조 목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우리는 별광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반사경이다. 우리는 반사경으로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은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된다. 하나님은 산 위의 동네(도시)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등불(촛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다. 밝은 낮 동안에는 산 위의 도시가 드러나지 않지만, 어두운 밤에는 불빛으로 인하여 그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등불이나 촛불을 켜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주어 주기 위함이다. 빛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그 빛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반사시키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반사경의 위치를 제대로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빛의 균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반사경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것과 함께 반사된 빛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 방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세상과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반

사경이 지향할 방향은,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마 22:36-40).

둘째는 반사경이 훼손되거나 때가 끼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야 한다. 아무리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여도, 반사경 자체가 잘못되면 빛을 제대로 반사시킬 수가 없다. 늘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볼 수 있다(마 5:8).

자신의 영적 반사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살전 5:17; 시 1:2). 시편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인니"다(시 119:9)라고 하였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다. 그것만이 영적 반사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빛의 출처가 하나님께서는 그 빛으로 말미암은 결과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착하다'는 표현 속에는 그것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행실은 구체적인 행동, 곧 과정의 결과를 강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대로 통과시키는 기계적인 반사경이 아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서 숙성의 과정을 거쳐 우리 자신들의 빛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착한 행실'은 신앙 안에서 성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로서의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갈 5:22-23).

'착한 행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 성숙시켜 주신 마지막 결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김성광 칼럼 전쟁 공포증



우리의 인생에도 수 많은 전쟁이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빛에 대한 반사경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께서 비주어 주시는 빛의 반사경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우

물을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짓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슬슬 도망을 간다고 한다. 개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짓어 대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겁내면 그것은 더 크고 강해진다. 반대로 우리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인생의 전쟁을 마주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두려움으로는 인생의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두려움이 우리를 더 약하게, 대적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생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리일(Thomas Carlyle, 1795-1881)도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전쟁에 담대히 맞서라. 그것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있다. 우리 군의 패색이 짙어가던 6.25 전쟁, 자칫하다가는 공산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맥아더 장군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그는 낙동강까지 몰려 있던 연합군을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서울을 수복하여 전쟁의 승리를 잡는데 크게 공헌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한국 전의 승리는 미국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 이 아닙니다. 한국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칼 헬티(Carl Hiltz, 1833-1909)는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복병을 준비해 두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그 희생에 놀라게 된다. 그것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인 것이다. 지금 인생의 한 순간 속에 힘들어 하고 있다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을 만나는 순간임을 기억하라.

셋째, 승리자가 얻는 전리품을 기대하라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국정연설에서 위기에 처한 영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한국을 배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1950년 전쟁을 겪은 한국이 경제가 파탄 났던 당시의 상황에 그자 굴복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라며 한국의 전쟁 극복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크게 성장했다. 영국은 우리의 이런 힘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을 이긴 사람에게는 전리품이 주어진다. 전쟁이 크고 치열할수록 얻을 수 있는 전리품도 크다.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전쟁을 이기고 나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보아야 할 것도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이다. 전쟁 너머에 있는 크고 값진 전리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전쟁을 이겨 내는 비결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는다. 그때마다 두려워한다면 전쟁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 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돋는 복병

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 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

다린다. 전쟁 공포증에서 벗어나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 한 장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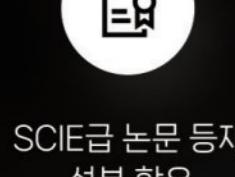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Psalms 23:6

基督日報
기독일보 www.cdaily.co.kr



하늘이 선물한 신비의 물질, 일라이트로 피부를 정화시켜주세요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함유



2년 전통발효한
감발효 원액 함유



Vegan
인증 소재 함유



천혜의 광물,
일라이트 함유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큰열매모자반"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은혜의샘물 헌신과 사랑 (3)

[데살로니가전서 1장 1-4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는 ‘노동’을 의미한다. 노동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수고를 말한다. 땀 흘려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랑의 수고’는 노동이 수반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한다.

노동에 따른 헌신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방법의 사형틀이라고 밝힌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서서히 죽어간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아무 죄 없이 전적으로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 때문에 당한 기적을 말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을 말한다. ‘사랑의 수고(labor)’란 노력하는 사랑, 조율하는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 땀 흘리는 사랑을 말한다. ‘소망의 인내(steadfastness)’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포기하지 않는 소망, 좌절하지 않는 소망을 말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땀과 노동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였다. 이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바울은

그러나 쉽게 일군 사랑은 쉽게 식어버린다. 고통과 노동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기쁨과 행복의 열매는 산고의 노동이 있는 후에 열린다.

남부 칠레의 높지에는 리노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 산란기가 되면 이 작은 개구리의 암컷은 젤리에 쌓인 알을 낳는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수컷은 이 알들을 모두 삼켜버린다.

물론 그것을 먹이처럼 완전히 삼기는 것 이 아니다. 수컷은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소리주머니 속에 그 알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알들이 소리주머니에서 성숙할 때까지 자신을 희생 한다. 자신의 존재 이유며 중요한 폐적인 우는 것까지도 포기한다. 소리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먹는 것 까지 포기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알들이 완전히 성숙하기까지 입을 벌리지 않는다. 알들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리노데르마르는 자신의 입을 벌려 마치 긴 하품을 하듯 새끼 개구리를 입에서 내 보낸다.

이렇게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또는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랑은 죽어 있는 것들에 속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들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도 노동과 수고에 의해 결실한다. 노동이 크면 사랑도 커진다. 노동이 크면 열매도 많아진다. 애써 번 돈은 귀한 법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낭비된다. 마천가 지로 어렵게 일군 사랑은 오래 지속된다.

‘헌신과 사랑(1)’에서 하나님께서 성육

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사랑을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참여와 협동의 마음에서 또 포기와 동일시에서 찾아보았다. ‘헌신과 사랑(1)’에 있어서 관심과 기도와 책임과 이해와 존중과 주는 것 등에서 헌신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헌신적인 사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찾을 수 있다. 관심과 배려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관심과 배려가 없는 사랑은 가짜이다.

개화기 때, 6조(六曹)에서의 점심 식사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판서나 참판과 같은 당상관(堂上官)이 맨 처음 먹고 나면 그 상을 물려 정랑(正郎)이나 좌랑(佐郎)과 같은 당하관(堂下官)이 먹고, 다시 그 상이 물려져 아전이 먹고, 아전이 물려 종들이 먹었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그토록 길었다. 이를 ‘네 물림 상’이라 불렀는데, 윗사람들은 상물림을 배려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얼굴이 메말라 수척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를 ‘양상수적(讓床瘦瘠)’이라고 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관심과 배려가 있다.

둘째, 헌신적인 사랑은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간절한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다.

오래전 미국 어느 도시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버려져 있었

다. 그 아기는 소경에다 뇌성소아마비를 앓았고, 정신까지 박약한 아이였다. 우유를 빨아 마실 반사 본능마저 없는 애기였다. 이 애기를 발견한 병원 당국은 당황해하다가 마침 은퇴한 간호원 메이 웨이케와 이 딱한 사정을 의논하게 되었다. 당시 52세로 신앙심이 깊었던 웨이케는 사랑을 생각해 냈다. 음악아이랄 데 레슬리를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는 생각을 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웨이케는 집안을 온통 음악으로 가득 차웠다. 그리고 레슬리를 손가락을 집어주며 피아노 연습을 시켰다. 그러나 레슬리는 한 번의 기적으로 만족하라는 듯 더 이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1971년 겨울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다. 곤한 잠에 빠진 가족들은 누군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는 소리에 잠을 깨었다. 순간 웨이케는 무엇에 훌린 사람처럼 레슬리를 방으로 달려갔다. 레슬리가 미소를 머금은 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웨이케는 소리쳤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슬리를 잊지 않았으셨군요.” 레슬리의 눈에서도 21년 만에 진주 같은 이슬이 맺혔다.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다. 성당이 풍부했다. 이후 그는 뉴욕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더듬대며 “음악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했다. 매스컴은 이 신화를 메이웨이케 부인의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고 보도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참된 행복

사람이 4억 4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카우센이라는 독일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서독에만 1만 5천 개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도 25개의 빌딩과 1천 5백 개의 아파트가 그의 것이었으며 애틀랜타 시에는 무려 53개의 빌딩에다 4천 2백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재벌이 목을 매어 자살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 4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망한다고 해도 적어도 백만 달러 정도는 남을 것이고 그 정도의 돈이라면 남은 평생을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욕심이 결국 사망을 부른 것입니다.

세상의 돈, 권세, 명예와 같이 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와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닷컴 제공

교회오빠

내 영혼에 소망되시는 예수님

내 영혼에 소망되시는 예수님
세상이 내미는

달콤한 유혹의 손짓을 멀리하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떠나

죄와 더불어 탐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죄의 마음을 숨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하지 않게 하소서.

소망이 없는 죄의 모습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영혼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
게 하소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며
선악과를 쥐하여 주님께 범죄하듯

우리들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동일한 모습이리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평생토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내 영혼에 소망되시는 예수님

주님만이 내 영혼의 길이요

주님만이 내 영혼의 빛이요

주님만이 내 영혼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내 영혼의 구원이심을 고백합
니다.

세상을 살며 죄지은 나의 영혼

죄와 더불어 탐하며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주님!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죄지은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의 소망되신 예수님만을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사랑하게 하

옵소서.

최문식 / 창골산 봉목사 제공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AICh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찬양 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음악이다. 이 음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 이시며 받으시는 분이 기쁘하는 음악이어야 찬양이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음악은 자격 있는 사람만이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안에서 음악은 어떤 음악이어야 하며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8절 : 그러므로 우리

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주의 나라를 받은 자, 주의 자녀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말씀의 기쁨이 있고, 생활 속에서 예배할 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경건함으로 살 때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는 우리의 성화(경건한 삶)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의 존경과 멀리는 마음으로 음악을 하 고 찬양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것이라.

찬양에 경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는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찬양은 밖으로

주위의 일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돋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힘을 가진다. 그리고 안으로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 물들지 않을 때 찬양의 경건함을 지킨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

지나라.

찬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와 같이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찬양의 동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수함을 가지고 신령한 집을 이루어야 하며 찬양하는 자는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아낌없이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께서 흡향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출처 : 다음카페 만나와 메추라기

예배자를 위한 두려움(2)



이선종 지휘자

〈흉모(나바트)와 활기(나하르)〉

흉모와 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바트와 나하르는 노래 가사의 시적 발음이 눈부시게 살아 화려한 광채를 띠고 있다. 잠시 전에 있었던 어떤 수치와 당황과 모욕과 혼란은 전혀 사라지고 없고 오직 영원한 평강으로 가득차 빛나고 있다. 그 어떤 비난과 어두움과 나쁜 두려움은 온데 간데 없다.

큰 두려움, 오직 그들의 얼굴과 몸은 알 수 없는 충만으로 눈부신 내적 열기인 희열과 외적 열기인 광채로 큰 두려움으로 가득차워져 있다 한다.

흉모와 활기(광채)가 지시하는 고조된 상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나비트나하르 단어의 원석이 가진 감수성은 큰 두려움이다.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현재적 임재다.

흉모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존경인 두려움이요 광채는 하나님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두 두려움이 만나 큰 두려움이 일어난다.

(두려움의 결핍)

어떻게 큰 두려움이 모자라 나쁜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되는가?

인간은 본디 그 존재 형편이 완전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기에 결핍과 그 결핍에 대한 소외의식에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은 형편 행동을 한다. 결핍은 밖에서 타자가 채우지 않으시면 자신 안에 결핍에서 오는 소음적 두려움으로 채우려 한다. 두려움은 원래 혼수상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일, 교회에서 찬양한 녹음을 월요일 편집하는 녹취원에는 두 종류의 사운드가 존재한다. 하나는 주사

운드이고 다른 하나는 소음이다. 편집 활동의 대부분은 주 사운드를 더 잘 드러내게 하고 소음은 지우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어떤 때는 주 사운드가 들리지 않아 볼륨을 키우면 소음만 크게 들린다. 이 때 주 사운드 없는 소음만의 세계에 잠시 있게 된다. 그 세계는 아주 불편하고 가혹하게 처참하다. 이런 사운드는 곧 지워진다. 우리 영혼에 두 종류의 사운드가 있다. 오직 바로 그 하나님만이 신 주 사운드가 작동하지 않으면 보잘 것 없는 주변 소음만이 드러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소음이라도 크게 들으려 한다. 그게 대체로 시정에 보이는 인간이다.

형편에 의해 자신을 유지하는 존재인 인간은 큰 두려움이 작동하지 않으면 소음인 주변적 두려움이 그 공간을 채우며 들어온 소음이 마치 주 사운드인 줄 안다. 비어있는 곳에 쓰레기만 잔뜩 채워진 공허가 자신의 쳐지인줄 알며 마치 그런 형편에 자신이 처한 것을 운명으로 생각한다.

(형편 주머니)

비어있는 존재 형편 주머니를 소음으로 채우는 자와 흉모와 광채로 채우는 이가 있다. 큰 두려움을 지난 인생은 얼마나 불품이 있는가? 큰 두려움이 없는 존재 형편은 소음만이 자배하는 행과리한 묵상 소리였다. 하나님은 흉모하는 이에게 광채로 찾아 가신다.

◆이선종 지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VKCC 지휘자/성서 번역가

에서 오는 것이요, 주시는 자의 광채가 멈추지 않는 충만에서 온다. 아무 것도 없는데 큰 두려움과 광채와 충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망과 기다림과 고난과 걱정적인 내적 분규가 고조되고 치열해질 때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

성서는 갑급한 영혼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가신다고 보고한다. 큰 두려움에는 모든 것이 평정된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보니(나바트) 주의 개입하심과 내 근거리에 나를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목격하고 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덮쳐온다(나하르).

말할 것도 없이 찬양하는 자는 소음 같은 무서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인 두려움은 그 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분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미련이 많이 그렇다. 오직 그 분만이 작동하려면 그 분 외에는 세상 순위를 뒤로 보내야 한다. 찬양자의 선택은 오직 두려움만이 그가 선곡하고 찬양하는 그 현재에 가장 큰 아티큘레이션이어야 한다. 지휘자에게 두려움이란 그 크신 분을 감히 알고 누리려는 영적 감수성이다. 오토가 만난 누미노제는 시골 시나고그의 헬떡이는 초라한 묵상 소리였다. 하나님은 흉모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이다.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로부터”라고 고백한다. 즉 끊임없이 눈을 드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알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것이다. 어려움만 묵상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이다.

둘째로, 주님의 시간을 우리 시간에 맞추려 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은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셨다(한국어 성경은 그대로 읽으면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문은 여

가나 혼인 잔치 속에 보이는 예배의 비밀들 1



조성환 목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 잔치를 귀히 여기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예배에 대한 교훈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임태하기

전에 이미 천사장의 예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라고 종들에게 부탁한다. 왜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열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요 2:5)

첫째로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은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즉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말이다.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로부터”라고 고백한다. 즉 끊임없이 눈을 드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알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것이다. 어려움만 묵상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이다.

둘째로, 주님의 시간을 우리 시간에 맞추려 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은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셨다(한국어 성경은 그대로 읽으면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문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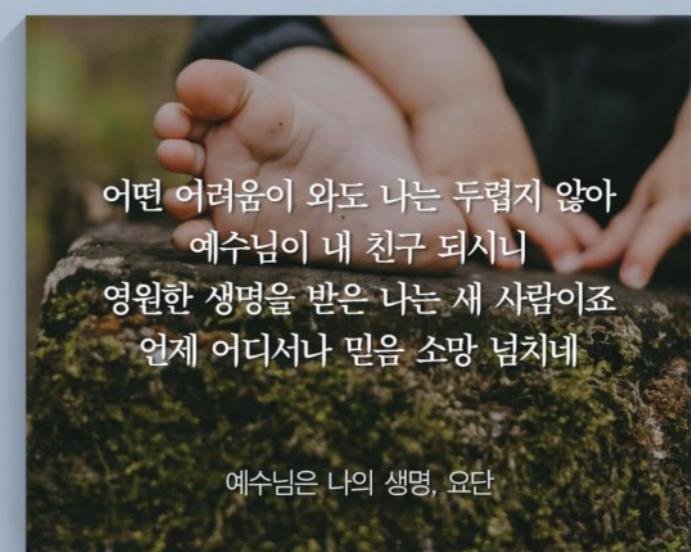
인을 높여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에 곧 주님의 일을 하셨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의 시간에(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예배하는 자는 주님의 눈동자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간에 이뤄지도록 찬양하고 예배한다. 주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기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는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아낌없이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께서 흡향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 조성환 목사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학장단의 상임지휘자로 섭기고 있다.

찬양 한 표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니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나는 새 사람이죠
언제 어디서나 믿음 소망 넘치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요단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CTS, 창사 30주년 맞아 특집 다큐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 방송

영상 선교 30년 역사와 도전, 기적의 순간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아프리카 교육선교와 CTS의 비전도 소개

CTS 기독교TV(회장 김경철)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12월 1일 오전 9시 10분에 특집 다큐멘터리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를 방송한다. 이번 특집은 CTS가 걸어온 30년간의 영상 선교 역사를 담아내며, 김경철 회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동안의 도전, 위기, 기적의 순간들을 조명한다.



CTS 창사 30주년 기념 특집 다큐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의 한 장면(원쪽부터 방송인 최선규 집사, CTS 김경철 회장) ©CTS

다큐멘터리는 CTS가 직면했던 어려운 시절을 최초로 공개하며, 부도와 강제퇴거, 400억 원에 달하는 채무 문제, 사옥 건축 과정에서 겪은 고난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광야 시절’을 심도 깊게 다룬다. 또한,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해온 CTS의 사역도 함께 소개된다. 1교회 1학교 운동, 저출산대책국민운동본부 발족, 교회형 돌봄센터 입법 청원 등 CTS의 사회적 기여와 섬김의 발자취도 조명된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최근 진행된 아프리카 교육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담고 있다. CTS는 탄자니아의 UAUT(University of Africa Tanzania) 된다.

장지동 기자

CTS는 ‘서른 살의 예수처럼’을 슬로건으로, 순수 복음 방송과 섬김, 나눔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한편 CTS는 오는 12월 1일 10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창사 3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진행하며 새로운 3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한다. 예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02-6333-1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최근 진행된 아프리카 교육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담고 있다. CTS는 탄자니아의 UAUT(University of Africa Tanzania) 된다.

장지동 기자

청소년 기획단 주도… 놀이·공연·신앙·커뮤니티 결합한 축제의 장
청소년 관점 담은 축제 기획… “우리가 직접 만든 자리”
싸이퍼존부터 버스킹까지 ‘도시형 청소년 문화축제’ 추구

청소년 문화사역단체 지저스무브먼트

(대표 박래성 목사)는 최근 경기 부천 북부역 마루광장에서 ‘2025 위틴즈페스티벌(WETEENS FESTIVAL)’을 개최했다. 올해는 ‘FREEDOM! (Know Jesus, Get Freedom)’을 주제로,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이 주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틴즈페스티벌 운영위원회는 이번 축제가 말라기 4장 6절을 토대로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미디어로 이루어진

놀이 문화로 피폐해져 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연체험운영 전 과정에 청소년 기획단이 참여해, 10대의 관점과 표현 방식을 행사에 적극 반영했다.

현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만든 체험부스 공간인 ‘PP(Play Place)’다. 총 10개의 놀이부스가 운영됐으며, 방문객들은 학생들이 직접 고안한 놀아핸드메이드·미션형 콘텐츠 등을 체험했다. 구체적으로, 공 차기와 틱택토 게임을 결합한 놀이, 미로체험, 페이스페인팅, 닉트게임 등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한편 위틴즈 페스티벌은 2019년 힐리워크와 전문예술인들이 함께 새로운 놀이 문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어, 다음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는 축제이다.



2025 위틴즈페스티벌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한 학생의 수상 모습. (왼쪽부터 MC 김미라(Sarah), 수상자 Cathy, 지저스무브먼트 대표 박래성 목사) ©위틴즈페스티벌 인스타그램



학생 기획자들이 마련한 체험부스에서 한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위틴즈페스티벌 인스타그램



위틴즈페스티벌 메인 무대에서 워십밴드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위틴즈페스티벌 인스타그램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새중앙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335회) 율법과 복음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46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10 강연소 통(38회) 대인관계에서의 자존감과 수치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이경은(진주초대) –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의 뜻 (데살론이가전서 5:16-18) 30 생명의 말씀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애틀행재(현준)	10 [말씀] 김현준 목사(동안교회)(637회) 5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자막)(2회)	00 생명의 암시 대한(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360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년당화(97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4회)
	7:00 00 CTS뉴스W(28회) 20 생명의 말씀 대구동부·박성순, 비나를 잘 극복합니다 50 생명의 말씀 필그림·김형석, 하나님의 순이 이끄시는 회개의 길	20 행복한 쉼터 이리신광(권오국) 50 행복한 쉼터 소영중왕(김대성)	30 후면네컷(49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03회) 40 천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79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손병렬 목사
	8:00 20 내가 매일 기쁘게(3447회) 하나님의 사랑꾼, 기수 원혁	2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30 행복한 쉼터 삼천포 삼한(하태경)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20회)	00 하나님의 음성(96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93회) 고린도전서 14강	00 고품격 크리스천 치트 토크쇼 : 차톡(31회) 독립을 받칩니다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9:00 10 CTS 창사 30주년 특집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	00 사랑의 메시지 에버그린(김하필)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이제일)	00 [말씀] 박태호 목사(방주교회)(93회) 40 Q&A 107 소요리문답(56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17회)	10 새롭게 하소사(11370회) 순성락 전도사	0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62회)
	10:00 40 CTS 창사 30주년 특집 한국교회를 논하다(564회) 한국교회 와 함께, 100년을 향하여	00 사랑의 꽃 필 때	20 THE NEW 하늘빛향기(7회)	00 파워인터넷(205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11:00 (편성 없음)	00 비전설교 가나안(장경덕) 30 비전설교 베이직(조정민)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암광교회)(231회) 50 예수동행일기(1회)	20 세상을 보는 창(286회) 50 만나다(4회)	00 성지가 좋다 국내편(44회) 경기도 수원 2부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41회)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오후	12: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창세기 9강	00 사랑의 메시지 백송(이순희)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꿈(신용대)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2회) 20 [말씀] 이건호 목사(손복음대구교회)(107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린시티(조성의)	20 성경 속 전쟁사(17회) 좌와 전쟁,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역사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
	13:00 00 수령로의 시간 이규현 – 온전한 치유의 길, 감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리글(261회) 복음의 진수	00 행복한 쉼터 임마누엘(전당암) 30 행복한 쉼터 충일(박상현)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36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1회)	00 올포원(688회)	3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 50 원더풀우먼(5회) 우리 부부 사이 잘 맞다? 안 맞다?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만 목사(새생명비전교회)(143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무엘) 30 CBS 아카데미 金(181회)	00 새이엔 강단 소강석 목사
	15:00 4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심자기로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궁	00 [말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285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구)(4392회) 민수기 11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00 오픈하우스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안병찬)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70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2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11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2회) 50 맛나는 교회(16회)	00 내 삶의 행복(184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더위심(The Worship) 김성권(부산대양교회) 50 신앙에세이 박연식 목사(울산수성교회)	0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쉼터 영광의(조이엘)	30 2023 KGMLF(5회)	50 영혼의 암시_산위의마을(김영준)	00 강연소 통(38회) 대인관계에서의 자존감과 수치심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덕천-김경년,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30 CTS 창사 30주년 특집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	10 우리들의 지식살롱(12회) 40 더 깊은 윤리학 해설서 워십	10 리디온(16회)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1회)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호) 30 TV강단 김포좋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저녁	19:00 (편성 없음)	00 사랑의 메시지 우리들(김양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4회)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등수(주학선)	0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30 복음강단 청주사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영적석동교회 – 하나님의 부르심 10 신앙에세이 박근수 목사(신성장로교회) – 하나님의 부르심 20 더위심(The Worship) 강주성(광주서석교회)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비전설교 혜성(정명호) 40 김신우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톡톡 5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6회)	00 TV강단 순복음당일(고경환) 50 크리스천 칼럼_중앙성결(한기체)	00 비전메시지 강남전인교회 한재우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자구선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 마음의 치유와 회복 30 말씀노트: 말씀한장(1회) 시면 42면 50 CTS 뉴스	40 GOODTV NEWS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라이브워십 디(와서 찬양해) -뉴저지온누리교회-(4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93회) 고린도전서 14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40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53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창세기 9강	00 2025 다니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고등학교 리턴즈, 믿음원정대(2회) 50 예수동행일기(1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 하소서(11370회) 순성락 전도사	00 예루살렘 데이터라인(504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87회) 주운석 목사 두 번째 9강 인생 후반전 의 믿음: 불확실한 인생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1회)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사도바울의 흔적을 쫓아서	3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10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501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2회)	10 더 클링(138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32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79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리비ز온 위십 5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386회) 50 주성민 목사의 친양의 기도 One day 그 날에	00 힐링스토리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5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253회)	1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11회) 50 성경풀림 이것이 궁금하다(84회)	00 새이엔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말씀대로 살라 김선교 선교사 40 내가 매일 기쁘게(3422회)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기독교)(213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한국교)(558회)	00 CBS 아카데미 金(181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03회)	00 만나 U(6회)
	2:00 30 사인사색(4인4색) 철조망을 끊어라 – 정성진 은퇴목사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익 목사(반월암교회)(399회)	30 TV강단 시온(백성준)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창세기 9강 50 힐링스토리(64회) 성리 박사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217회) 3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382회)	00 맛나는 교회(16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옥한흠 목사 30 내 영혼의 친양	00 GOODTV 오늘의 차양 10 생명의식 딜리리枢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85회) 출애굽기 36강 50 CBS 교회소식(1027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회) 이정의 목사



SAMSUNG

Smart LED signage for Building

바로 지금 랜드마크가 되는 빌딩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코엑스 K팝 스퀘어,
신세계백화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삼성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연속 세계판매 1위를 기록해온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이니지

빌딩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삼성전자의 글로벌 노하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삼성닷컴 비즈니스 견적문의



고품질 LED

플리커와 모아레를
최소화한 AI 프로세싱,
HDR 10+ 기술

※ 플리커(Flicker) : 디스플레이 화면이
빠르게 깜빡이는 현상
※ 모아레(Moire) :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발생하는 줄무늬 패턴

원격 제어 솔루션 적용 (별도 구매)

원격으로 제품 컨트롤이나
상태 모니터링 가능
원격 콘텐츠 배포 가능

※ 지원 기능은 모델별 상이